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사람의 본성과 인위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기에 편지를 쓰네. 사람이 배울 수도 없고 애쓸 수도 없지만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을 본성[性]이라고 한다네. 반면 배울 수 있고 애쓰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인위[僞]라고 하네. 이것이 본성과 인위의 분별[性僞之分]이라네. 그러므로 반드시 성인의 교화로 인도한 뒤에야 비로소 서로 예의를 갖추게 되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라네. ... (후략).

- ①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 ②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기 위하여[求放心]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
- ③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달아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④ 타고난 본성[性]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⑤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齊物] 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으로 소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투자의 포괄적 사회화, 즉 공적 투자의 창출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을: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회주의의 약속은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경쟁 사회의 사유 재산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 기업 시스템이야말로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유 보장 방법이다.

- ① 갑: 정부는 사유 재산제 철폐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② 갑: 정부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③ 을: 정부 규모를 확대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
- ④ 을: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계획 경제를 도입해야 한다.
- ⑤ 갑, 을: 정부는 재화의 재분배를 위해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해야 한다.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선의 이데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선의 이데아 때문에 올바른 것이 유익하게 된다.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될 것이다.  
 을: 이성을 사용하면서 발명과 발견을 중시하지 않아 학문의 발전이 없었다. 형식 논리학의 경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지 않고 기존 지식을 맹신함으로써 우상에 빠졌다.

- ① 갑: 참된 지식은 이성으로 파악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 ② 갑: 국가를 통치하는 자에게는 오직 지혜의 덕만이 필요하다.
- ③ 을: 새로운 지식은 귀납 논리가 아니라 연역 논리로 얻어진다.
- ④ 을: 인간은 진보와 과학 발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우상에 빠진다.
- ⑤ 갑, 을: 관찰과 실험만이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4.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교학(敎學)과 지관(止觀)을 함께 해야 한다. 교종은 외적인 공부에 치중하고, 선종은 내적인 공부에 치중한다. 따라서 내외겸전(內外兼全)하지 못하는 수행은 참다운 수행의 방법이 아니다.  
 을: 선정(定)은 본체(體)이고 지혜(慧)는 작용(用)이다. 지혜는 본체를 마주하여 나온 작용이므로 선정을 떠나지 않고, 선정은 작용을 마주하여 나온 본체이므로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 ① 갑: 모든 존재는 자성(自性)이라는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있다.
- ② 갑: 경전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참선 수행까지 할 필요는 없다.
- ③ 을: 본체인 선정을 작용인 지혜보다 우선적으로 닦아 나가야 한다.
- ④ 을: 선(禪)은 부처의 말씀과 같고 교(敎)는 부처의 마음과 같다.
- ⑤ 갑, 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無常]을 깨달아야 한다.

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유토피아에서는 필요한 것을 아무런 문제없이 얻는다. 사람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집을 교환한다. 그들은 6시간 일하고 남은 시간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으나, 나태하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p> <p>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이룩된 공산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될 만큼 생산물이 산출될 것이다. 구성원들의 소질이 다방면으로 사용될 기회가 제공되며 종래와 같은 분업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p>
(나)	

<보 기>  
 ㄱ. A: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 소유의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가?  
 ㄴ. B: 이상 사회에서는 성인의 노동과 지적 활동이 보장되는가?  
 ㄷ. C: 이상 사회에서는 계급이 사라지고 자아실현이 가능한가?  
 ㄹ. C: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2 (윤리와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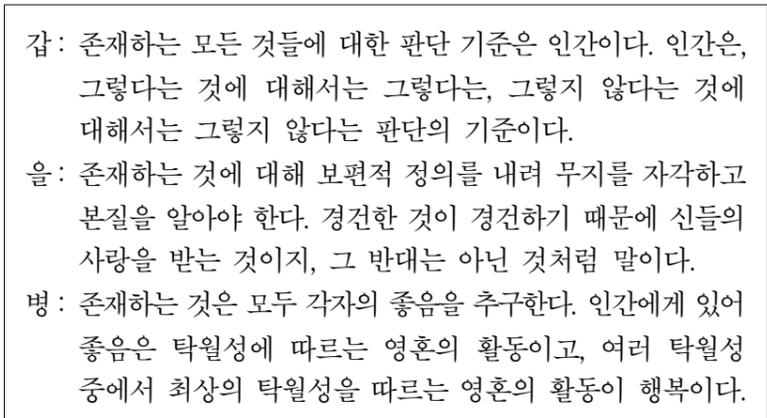
## 사회탐구 영역

6. 가상 대화의 ‘스승’은 동양 사상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사로운 욕심을 없애서 하늘의 이치[天理]를 보존하는 것이네.
- ②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고요하게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네.
- ③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네.
- ④ 타고난 양심을 지켜 내고 본성을 함양하여 늘 성찰하는 것이네.
- ⑤ 마음의 바르지 못한 것을 없애서 본래의 바름을 회복하는 것이네.

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보편적 진리는 이성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모든 악한 행위는 고의가 아니라 무지에서만 생긴다고 본다.
- ③ 병은 실천적 지혜로써 질투에 대한 중용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만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병은 을과 달리 덕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8.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사람들의 원한이 오랫동안 쌓여 왔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 원한을 해소하고 서로를 살리며[解冤相生], 은혜를 갚는 것이 새로운 안정을 얻는 첫걸음이다.

(나) 일원상(一圓相)이라는 근원과 삼학(三學)으로써 진리를 얻어, 영혼과 육체를 함께 닦고[靈肉雙全] 도학과 과학을 함께 발전시켜야[理事並行] 한다.

- ① (가):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② (가): 무속과 도가를 재해석하여 시대 혼란에 대응해야 한다.
- ③ (나): 종교적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도 병행해야 한다.
- ④ (나):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여 불교의 생활화를 지향해야 한다.
- ⑤ (가), (나): 성리학적 질서만을 근본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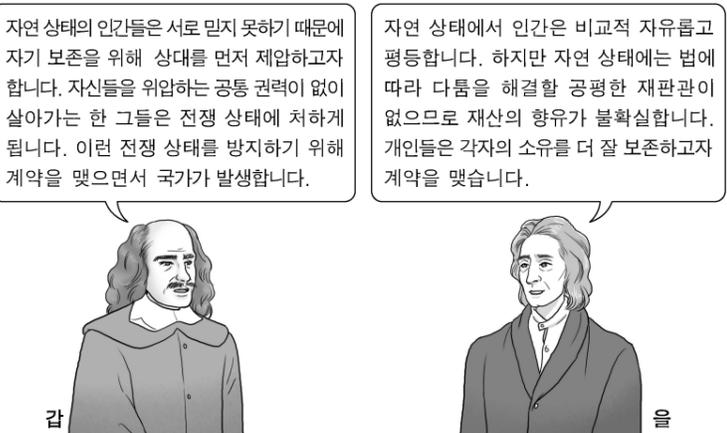
9.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의 본성은 없다. 그것을 구상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실존하게 된 이후에 스스로에 대해 구상하고 바라는 대로 있게 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리이다.

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에 의한 죽음은 언제나 자기를 삶 가운데로 옮겨 놓는다. 절망한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칼이 사상을 죽일 수 없는 것과 같다.

- ① 갑: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주체적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② 갑: 인간은 삶의 객관적 목적 실현을 위해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 ③ 을: 실존의 최고 단계에서는 보편적 윤리 규범만을 따라야 한다.
- ④ 을: 인간은 주체적 결단보다 합리적 사유를 통해 자이를 확립해야 한다.
- ⑤ 갑, 을: 자신의 실존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거부해야 한다.

10.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 평화와 안전은 자연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장된다.
- ②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 욕구 때문에 이성을 지니지 못한다.
- ③ 을: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 ④ 을: 인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부의 권력에 저항할 수 없다.
- ⑤ 갑, 을: 재산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

11. (가)의 근대 서양 사사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쾌락에 몰두한 사람이라도 '향락을 위해 자연적 재능을 방치해도 된다.'는 준칙이 법칙이 되길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는 보편적 법칙에 맞는 행위의 준칙을 따라야 한다.</p> <p>을: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하여 비교하라.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 그 행위의 좋은 경향을 말해 줄 것이고, 고통 쪽으로 기울면 그 반대의 경향을 말해 줄 것이다.</p> <p>병: 쾌락의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만 따져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p>
(나)	

- ① A, F: 도덕의 원리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② B: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방법임을 간과한다.
- ③ C: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임을 간과한다.
- ④ D: 행위 관련 당사자들의 쾌락의 양을 고려해야 함을 부정한다.
- ⑤ E: 쾌락의 추구가 개인의 행위 준칙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한다.

12.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p>갑: 대도(大道)가 무너지니 인(仁)과 의(義)가 생기고 지혜가 나오니 큰 거짓이 생겼다. 성인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사람들의 이로움이 백배가 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사람들이 효도와 자애를 되찾게 된다.</p> <p>을: 우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어 주어도 괴롭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짧게 잘라 주어도 슬프다. 본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 법이다. 인과 의 또한 괴롭고 슬픈 것으로, 사람이 본디 갖출 것이 아니다.</p>
---

<보 기>

<p>ㄱ. 갑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인과 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p> <p>ㄴ. 을은 목적 없이 노니는 것[逍遙]이야말로 자유의 경지라고 본다.</p> <p>ㄷ. 갑, 을은 큰 나라에 많은 백성이 있어야 이상적인 사회라고 본다.</p> <p>ㄹ. 갑, 을은 아름다움과 추함[美醜]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본다.</p>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리스도교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갑: 인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왜냐하면 누구든 신의 나라에 도달할 때 믿음과 소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랑만은 더 크고 강하게 영속하기 때문이다.</p> <p>을: 인간은 면죄부가 아니라 신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에 이를 것이다. 신에게 순종할수록 죄의 세력이 약해지지만, 신에게 거역할수록 죄의 세력은 강해진다.</p>
--

<보 기>

<p>ㄱ. 갑은 악을 신이 창조한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p> <p>ㄴ. 갑은 믿음, 소망, 사랑을 종교적 덕이 아닌 도덕적 덕이라고 본다.</p> <p>ㄷ. 을은 누구나 성서와 기도를 통해 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p> <p>ㄹ. 갑, 을은 구원이 은총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p>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모두 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은 신 안에 있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신의 본성이 일정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양태이다.
(나)	제자: 자유로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승: _____ ㉠ _____ 존재라네.

- 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음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 ② 인격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 ③ 이성을 통해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영원한 행복을 찾는
- ④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결정된 삶에서 벗어나는
- ⑤ 자기 보존의 욕망을 단념함으로써 덕 있는 삶을 추구하는

1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仁)이란 무엇일까요? 인은 자기를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세상이 모두 어질게 될 것이니, 인의 실천은 나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 ① 예를 행할 때는 검약하지 말고 가급적 사치스럽게 해야 한다.
- ②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임금은 신하를 예로 대해야 한다.
- ③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한 예를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힘써야 한다.
- ④ 효는 부모가 살아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항상 예로 모시는 것이다.
- ⑤ 백성을 예로 대해야 백성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긴다.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16~17]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기(理氣)의 분별이 있다. 같음 속에 다름이 있으니, 사단은 이(理)를 위주로 칠정은 기(氣)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 이들을 나누어 배속시키는 것에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을: 사단은 기가 발(發)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측은지심이 발한다. 그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기발(氣發)이며, 측은의 본(本)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승(理乘)이다.

16.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ㄱ. 사단의 정(情)과 칠정의 정은 그 연원이 모두 같은가?  
 ㄴ.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까닭(所以)은 이(理)인가?  
 ㄷ. 인과 측은지심은 모두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탄 정인가?  
 ㄹ. 사단은 칠정을 겸(兼)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명칭은 행사(行事) 이후에 성립한다. 남을 사랑한 뒤에 인이라 하고 나를 선하게 한 뒤에 의라 한다. 손님과 주인이 공손히 인사한 뒤에야 예라는 명칭이 성립한다.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한 뒤에 지라는 명칭이 세워진다. 인의예지라는 네 개의 낱말이 어찌 복숭아씨와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따로따로 매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 ①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도덕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사단은 사덕이 내재함을 알려주는 실마리(緒)임을 모르고 있다.
- ③ 사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선천적인 감정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사덕은 태어난 순간 마음 안에 갖추어진 본성임을 모르고 있다.
- ⑤ 사덕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를 따라 실천하여 형성됨을 모르고 있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다. 폭력에는 전쟁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사회구조 자체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등에 내재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을: 천하에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兼愛)와 서로 이롭게 하는 교리(交利)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① 갑: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평화는 달성된다.
- ② 갑: 소극적 평화를 이루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을: 자국과 타국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 ④ 을: 친소(親疎)를 분별하는 사랑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 ⑤ 갑, 을: 평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적국에 대해 선제공격해야 한다.

1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 본성은 선에 대해 약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약하다. 본성은 고통의 부재인 쾌락에 의해 구원되는 반면, 고통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이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을: 인간 본성에 따라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라. 부자나 권력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를 위해 너에게 달려 있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라. 이성을 통해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보기>  
 ㄱ. 갑: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ㄴ. 갑: 공동선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ㄷ. 을: 평온한 삶을 위해 욕망과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ㄹ. 갑, 을: 행복을 위해 정신적 쾌락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나의 활동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타인의 방해받지 않는 영역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축소될 때, 나는 강제 받고 있거나 노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을: 자유는 시민과 노예 간의 대조를 통해 표현된다. 노예와는 달리 자유의 조건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즉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보기>  
 ㄱ. 갑: 국가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ㄴ. 을: 시민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천부 인권이다.  
 ㄷ. 을: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ㄹ. 갑, 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큰 감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위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여 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입니다. 도덕 법칙은 동물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모든 감성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나에게 드러내 줍니다. 이러한 도덕 법칙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입니다.



- ①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법칙을 따르기 위해 힘쓴다.
- ②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자율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③ 행복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리고 신이 부여한 계율을 따른다.
- ④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한다.
- ⑤ 의무 의식이 아니라 자연적 감정을 행동의 기반으로 삼는다.

2.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군자와 소인의 본성[性]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化性起偽] 때문이다. 인위를 일으키면 예의가 생겨난다.</p> <p>을: 군자는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본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마음을 보존한다. 인으로써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써 마음을 보존한다. 어진 자는 남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남을 공경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ㄱ. A: 군자는 소인과 달리 타고난 본성에 순응하지 않는다.  
 ㄴ. B: 사람은 누구나 교육과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  
 ㄷ. B: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같지 않다.  
 ㄹ. C: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최초의 상황보다 개선되며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협동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을: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지만 취득, 이전 및 교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의관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 ① 갑: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
- ② 갑: 차등의 원칙에 따라 우연적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상해야 한다.
- ③ 을: 재화 소유의 역사적 과정보다 최종적 분배 결과가 중요하다.
- ④ 을: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 ⑤ 갑, 을: 정의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출된다.

4.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일원(一圓)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見性)이고, 일원의 본체를 지키는 것은 양성(養性)이며, 일원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率性)이다. 이 공부를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학식과 총명에 관계없이 성불함을 얻으리라.

을: 수심정기(守心正氣)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며 남에게 온화하고 공손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갓난아이 보호하는 것처럼 하고, 늘 조용하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늘 깨어 혼미한 마음이 없게 하라.

- ① 갑: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갑: 물질 문명을 완성한 이후에 정신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 ③ 을: 마음속이 아닌 하늘에 존재하는 한울님[天主]을 섬겨야 한다.
- ④ 을: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서 사람들의 원한을 해소해야 한다.
- ⑤ 갑, 을: 유교적 이념을 중심으로 불교와 도가 사상을 통합해야 한다.

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신이 하는 일에는 신의 섭리가 담겨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신의 섭리, 즉 자연의 인과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하다. 당신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도록 하라.

을: 신은 최고 존재이며, 무(無)에서 창조한 것들에게 존재를 주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랑이 두 나라를 건설했다. 지상의 나라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멸시할 때, 천상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 ① 갑은 필연성에서 벗어날 때 정신적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이 영혼 속의 정념을 따르면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인간이 신보다 자기 자신을 따름으로써 죄를 짓는다고 본다.
- ④ 을은 믿음이 아닌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으로 지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오직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본다.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한 나라가 용기 있는 것은 이 나라의 한 계층에 의해서이다. 이 계층은 두려워할 것들에 대한 의견을 보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용기는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의견을 끝까지 보전하는 것이다.  
 을: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하며, 반대로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하다. 용기라는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 ① 갑은 전체를 위한 유익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
- ② 갑은 덕을 갖추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용기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앎이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실천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본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그 누구의 노동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이러한 영역들의 내재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① 갑: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
- ② 갑: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 ③ 을: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 ④ 을: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⑤ 갑, 을: 경제적 재화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우상(偶像)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얻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우상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公理)를 형성하는 것이다.  
 을: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식은 문제 해결의 도구이다. 과학과 신기술은 가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러한 도구를 인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효과적인 도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보기>

ㄱ. 갑: 우상 타파를 위한 최선의 탐구 방법은 삼단 논법이다.  
 ㄴ. 을: 실험과 지성적 탐구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ㄷ. 을: 지식의 유용성보다 자명한 지식의 발견을 중시해야 한다.  
 ㄹ. 갑, 을: 자연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상 대화의 '스승'은 한국 유교 사상가이다. 이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제자: 지난번에 선생님께서는 “사단과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사단을 겸(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때 잠깐 언급하셨던 수기(修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스승: 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뜻을 세워야[立志] 하네. 그 다음은 수렴(收斂)인데, 이것의 핵심은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경(敬)을 지니는 것이라네. 수렴 다음에는 궁리(窮理)와 성실(誠實)에 힘쓰고 기질을 바로잡아야[矯氣質] 하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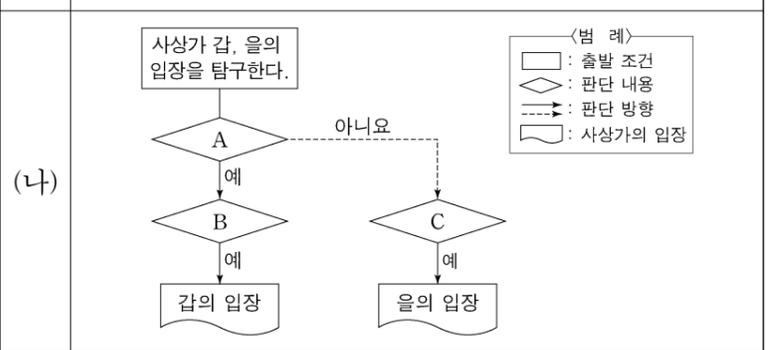
ㄱ.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一邊]이며 칠정에 포함되는 것인가?  
 ㄴ. 사단이 생성되게 하려면 누구나 기질을 교정해야[矯] 하는가?  
 ㄷ. 경을 지니는 것[持敬]은 궁리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가?  
 ㄹ. 경으로 주재하여 사특함을 제거해야 성(誠)에 이를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다. 또한 공감은 다른 많은 덕을 유발하며, 이 덕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경향 때문에 우리의 승인을 얻는다.

(가) 을: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면 승인하고 감소시키면 부인하는 원리이다.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이다.



<보기>

ㄱ. A: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선할 수 있는가?  
 ㄴ. A: 도덕은 공감의 원리에 따른 승인과 부인의 감정에 기초해야 하는가?  
 ㄷ. B: 덕과 부덕은 이성이 아니라 도덕감에 의해 구별되는가?  
 ㄹ. C: 행위의 도덕성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한국 불교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법이란 '중생의 마음[衆生心]'을 일컫는다. 대승 가운데 있는 일체의 법은 별도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법 자체가 오직 일심(一心)이다. 그러므로 일심을 대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을: 부처는 '중생의 마음' 속의 부처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의 근원을 알고자 하면 무명(無明) 속에 있는 자신조차도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깨친[頓悟] 다음에도 습기를 점차 소멸시켜 나가야[漸修] 한다.

- ① 갑: 일심의 법에서 보면 생겨남[生]과 사라짐[滅]은 둘이 아니다.
- ② 갑: 부처의 가르침은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니 화쟁(和靜)해야 한다.
- ③ 을: 내 마음이 부처임을 자각하면 더 이상의 수행[修]은 필요 없다.
- ④ 을: 혜(慧)는 정(定)을 떠나지 않고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
- ⑤ 갑, 을: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을 지녔으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2. 다음은 고대 중국 사사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성인(聖人)은 무위(無爲)에 머물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또한 만물을 잘 자라게 해 주면서도 가지려 하지 않고, 공(功)을 이루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인(聖人)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비도 몸에 지니지 않습니다. 또한 덕의 조화[和] 속에서 마음을 노닐게[遊心] 합니다.



- ① 갑: 성인은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물면서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 ② 갑: 성인은 사람들이 공적을 쌓아 널리 이름을 떨치도록 돕는다.
- ③ 을: 성인은 도(道)의 관점에서 시비와 선악을 명확하게 분별한다.
- ④ 을: 성인은 각각의 자연적 특성을 가진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⑤ 갑, 을: 성인은 예(禮)를 가르쳐서 백성의 본성이 실현되도록 한다.

13.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완전 고용은 우리의 자본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에 근접하는 효율적 수단이므로, 정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완전 고용은 우리의 사회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생산의 계획화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계획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보 기>

ㄱ. (가): 유효 수요의 과잉이 실업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ㄴ. (나): 공공의 이익 증진이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 중요하다.  
 ㄷ. (나): 계획 경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한다.  
 ㄹ. (가), (나):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15]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 수는 없다.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으면서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롭게 살 수는 없다.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덕과 떨어질 수 없다. 즐거움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을: 즐거움에 굴복하여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좋은 일이 더 큰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지금보다 더 좋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즐거움에 굴복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무지이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지혜이다.

14.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면 불안이 생길 수 있다.  
 ㄴ. 을: 지혜를 갖추어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ㄷ. 을: 앎이 없어도 지나친 욕구에 대해 절제의 덕을 지닐 수 있다.  
 ㄹ. 갑, 을: 행복을 위해 즐거움에 대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5. 갑과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두 가지 쾌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느 한쪽의 쾌락을 높이 평가해서 다른 쪽의 쾌락에 비해 그 양이 적을지라도 선택한다면, 그 쾌락은 질적으로 훨씬 우월한 것이다.  
 ○ 우리가 인정하는 자기 포기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그 행복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헌신뿐이다. 이때의 다른 사람들은 인류 전체이든, 인류 범위 내에 있는 개인이든 무방하다.

- ① 행복을 위해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멀리해야 하는가?
- ②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을지라도 자기희생 자체는 선인가?
- ③ 사회 전체 쾌락의 극대화를 도덕적 행위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 ④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면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 ⑤ 쾌락은 어떤 행위를 추구하거나 기피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인가?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색(色)을 즐거워하지 말고 색을 찬양하지 말며 색을 취하지 말고 색에 집착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만일 비구가 그럴 수 있다면, 곧 색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 이니라. 수(受), 상(想), 행(行), 식(識)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오온(五蘊)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 기>—

ㄱ. 오온의 실상(實相)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ㄴ. 만물은 무상(無常)하며 현실적 삶 그 자체는 고통이다.  
 ㄷ. 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ㄹ. 모든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의 본질을 구상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며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일 뿐이다. 세계 속에 던져진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신 또는 자연에 대한 지적인 사랑으로부터 생겨난다.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 사랑은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이다.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 사랑은 똑같다.

- ① 인간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함을 모르고 있다.
- ② 인간은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보편적 법칙에 대한 순응이 실존 회복의 근거임을 모르고 있다.
- ④ 행복을 누리려면 이성을 통해 감정을 순화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신은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임을 모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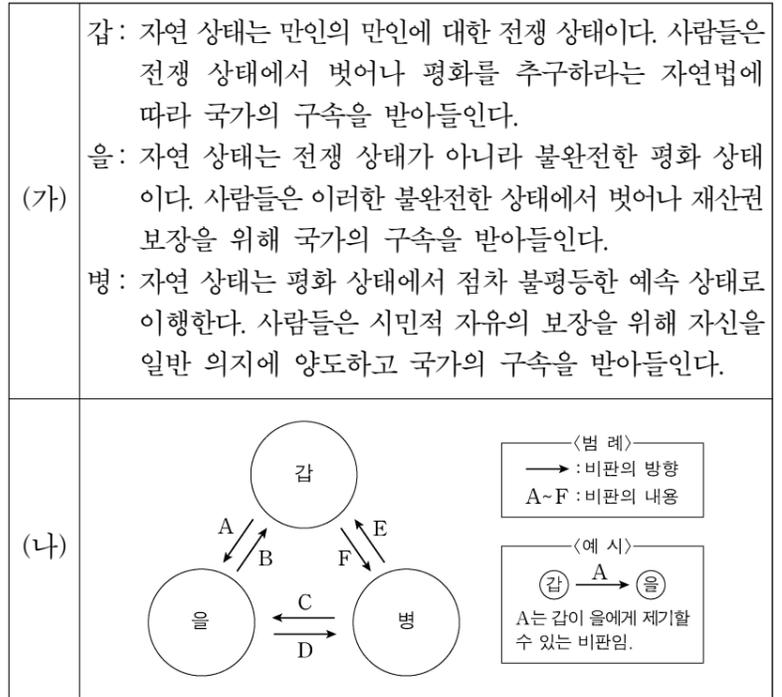
18. (가)의 갑, 을은 유교 사상가들이고, (나)는 유교 경전의 일부 내용이다. ㉠, ㉡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 사람의 성(性)이 선(善)을 좋아함은 물의 성이 아래로 흘러가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성과 행함[行] 때문에 덕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사단은 심(心)이라고 할 수 있다.  
 을: 성(性)은 하늘의 이치[理]이다. 마음[心]은 성과 정(情)을 통괄한다. 마음이 물과 같다면 성은 물이 고요할 때와 같고 정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사단은 성이 아니라 정이다.

(나) ㉠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 인(仁)의 단(端)이다.

- ① 갑: ㉠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마음이다.
- ② 갑: ㉠을 확충하기 이전에는 마음에 ㉡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을: ㉠은 ㉡이 마음에 내재함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단서이다.
- ④ 을: ㉠은 마음의 쓰임[用]인 정이고 ㉡은 마음의 본체인 성이다.
- ⑤ 갑, 을: ㉠과 달리 ㉡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天理]이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F: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침을 부정한다.
- ② B: 권력 분할보다 집중이 재산을 보장하는 최선책임을 부정한다.
- ③ C: 입법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위임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계약 이후에는 국가만 시민에 대한 형벌권을 소유함을 간과한다.
- ⑤ E: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20. 다음은 어느 현대 서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생님께  
 도덕적 행위에 관한 선생님의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달리 도덕적 행위에서 사람들이 배려자가 되는 것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는 유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무의 보편적 법칙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문제와 무관하게 우리의 도덕적 의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선생님의 입장은 ㉠ 고 생각합니다. ... (후략).

- ①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의무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 ② 도덕 법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배려의 의무가 자연적 배려에 대한 경험에서 발생함을 강조한다
- ④ 도덕 교육의 과제가 이성에 의한 추론 능력의 함양임을 간과한다
- ⑤ 인간관계의 특수한 맥락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됨을 간과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 선택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감각적 만족과 다릅니다. 그것은 고상하고 바람직한 쾌락을 향유하는 삶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 중 하나를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쾌락일 것입니다.



- ① 유용성을 초월하여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전통적 관행과 다수의 의사를 자신의 가치관보다 우선해야 한다.
- ③ 선형적 법칙과 선의지에서 비롯된 무조건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④ 단순한 육체적 쾌락보다 고상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⑤ 모든 쾌락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타인의 다양한 선호를 존중해야 한다.

2. 근대 한국 사상인 (가)~(다)의 공통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선천은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혔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참혹하게 되었다. 이에 만고의 원한을 풀어 후천의 선경(仙境)을 세우고자 한다.  
 (나) 공자의 가르침인 인의예지를 다시 밝힌 것이 수심정기(守心正氣)이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주문(呪文)을 외우며 한울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다)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진리에 따라 원만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깨닫고, 양성하며, 사용해야 한다.

<보 기>  
 ㄱ.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  
 ㄴ. 봉건적 신분질서에서 벗어나 만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ㄷ. 도학과 과학을 발달시켜 영(靈)과 육(肉)을 온전히 해야 한다.  
 ㄹ. 신앙과 수행을 위해 사회 변화에 초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성인(聖人)은 아무런 속박이 없이 자연에 노닌다.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갖풀(膠)\*로 여기며,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여기고, 기교를 장사하는 솜씨로 여긴다. 성인(聖人)은 모략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고, 꺾고 다듬지 않으니 어찌 갖풀이 필요하겠는가!  
 \* 갖풀: 짐승의 뼈나 가죽을 고아 굳혀 만든 풀.

- ① 무명(無明)에서 비롯되는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 ② 성인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덕적 규범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③ 의(義)를 쌓아 자연과 하나 되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하는가?
- ④ 시비와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가?
- ⑤ 백성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과 예를 가르쳐야 하는가?

4. (가)를 주장한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성(性)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理]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눌 수 있다. ○ 이(理)와 기(氣)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사물에서는 별개로 분리되지 않는다.
(나)	제자: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 _____ ㉠

- ①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해야 한다.
- ② 실천행[行] 후에야 앎[知]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 ③ 인간의 기질지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공부를 이어가야 한다.
- ④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발휘해야 한다.
- ⑤ 현세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항상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5.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해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신 또는 자연이 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과, 왜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은 동일하다.  
 을: 네 의견을 철회하라.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도 사라질 것이다. 느낌이 사라지면 피해도 사라질 것이다. 너를 모욕한 자가 판단하는 대로, 또는 네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가 바라는 대로 사물을 이해하지 말라. 사물을 사실 그대로 보라.

- ① 갑: 자연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신의 속성과 동일하다.
- ② 갑: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 ③ 을: 인간의 본성인 이성은 신과 자연을 인식하지 못한다.
- ④ 을: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어 은둔해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 ⑤ 갑, 을: 자연 질서가 반드시 필연적이거나 선한 것은 아니다.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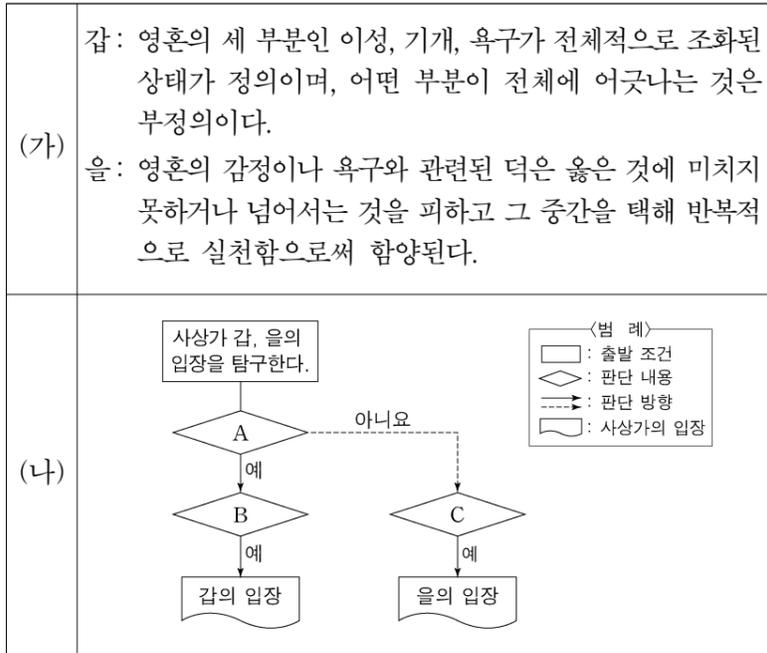
6.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仁)은 하늘이 주는 벼슬이며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도 막지 않는데 인을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는 것이다.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을: 예(禮)는 성인이 작위[偽]를 일으켜 만든 것으로,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임금에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직이 훼손된다. 엄한 명령과 형벌만으로는 위세를 떨칠 수 없다.

- ① 갑: 인은 친소의 구별이 없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다.
- ② 갑: 인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에 측은지심을 형성해야 한다.
- ③ 을: 예는 타고난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성현의 가르침이다.
- ④ 을: 예는 욕망 조절의 기준이자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제시한다.
- ⑤ 갑, 을: 인과 예로 다스림으로써 백성의 성(性)을 교화시킬 수 있다.

7.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A: 선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가?
  - ㉡ A: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행동하는가?
  - ㉢ B: 이성이 욕구를 지배하여 나타나는 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 ㉣ C: 어떤 경우에도 중용 상태에 이를 수 없는 행동이 있는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8~9]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성(誠)은 하늘의 진실한 이(理)요 마음의 본체이다. 경(敬)으로 주재하여 본심을 가리고 있는 사사로움과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해진다. 경은 공부하는 요령이며 성은 공부를 통해 도달해야 할 경지이니, 경으로써 성에 이를 수 있다.

을: 성(誠)은 하늘의 길(天道)이요, 경(敬)은 사람의 길(人道)이다. 무릇 마음은 한결같이 몸을 주재하고, 경은 한결같이 마음을 주재해야 한다. 스스로 노력하여 성으로 나아가려면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역시 오직 경에 힘쓸 뿐이다.

8.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성은 마음을 집중하고 늘 깨어 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인가?
  - ㉡. 경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인가?
  - ㉢. 경은 일상에서 물욕이 본심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가?
  - ㉣. 성과 경은 참된 앎(良知)을 형성하여 성인에 이르는 방법인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과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무릇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없지만 선하다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악하다고 꾸짖으면 성내고, 도둑은 수치심이 없지만 청렴하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탐욕스럽다고 꾸짖으면 슬퍼하니, 사람의 성(性)은 기호(嗜好)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성(性)은 자연스럽게 생득적 덕을 드러내는 성향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성(性)은 인간만이 지니는 형구(形軀)의 기호일 뿐임을 모르고 있다.
- ③ 성(性)은 일상 속에서 선을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성(性)은 선악의 가치를 수반한 하늘의 이치(天理)임을 모르고 있다.
- ⑤ 성(性)은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임을 모르고 있다.

10.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깨끗함과 더러움[染淨]의 세계는 이미 둘 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마음[心]이라 하는가? 이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은 것이라 무어라 이름 지을 수 없어 역지로 '일심(一心)'이라 한 것이다.

을: 교(敎)를 닦으면서 관(觀)을 폐하거나 관에 치우쳐 교를 버리는 것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 나온 것이다. 따라서 교종의 승려도 선(禪)을 닦아야 하며, 선종의 승려 역시 교리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갑: 부처의 힘으로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불 수행은 삼가야 한다.
- ② 갑: 모든 종파의 이론들을 하나인 근원에 의거하여 회통해야 한다.
- ③ 을: 능력이 출중한 자는 화두를 드는 간화선 수행을 해야 한다.
- ④ 을: 점차적인 수행을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달아야[頓悟] 한다.
- ⑤ 갑, 을: 선(禪) 수행을 중심으로 하여 경전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11.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노트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은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의 주장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옳은 행위가 되는 부적절한 경우를 발생시킨다. 또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하고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을은 정언명령으로 표현되는 도덕 법칙을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의 주장은 형식에 치우쳐,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덕 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며, 의무가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할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갑: 인간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갑: 행위의 옳음은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해야 판단 가능하다.
- ③ 을: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
- ④ 을: 보편화 가능한 행위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갑, 을: 자신의 행복 증진은 보편적 도덕 원리 수립의 근거이다.

1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절망은 병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최대의 불행이고,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이 병에 걸리고서도 낫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병은 가장 위험천만한 병이 된다.

을: 불안에는 현존재를 개별화시키는 특별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별화는 현존재를 세상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되돌려놓으면서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현존재의 두 가지 존재 가능성으로서 드러내 보여 준다.

<보 기>

ㄱ. 갑: 윤리적 실존은 심미적 실존으로부터 도약하여 전개된다.  
 ㄴ. 갑: 주관적 진리와 주체성이 없어도 진정한 실존은 가능하다.  
 ㄷ. 을: 죽음의 불안은 현존재를 본래적 삶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이다.  
 ㄹ. 갑, 을: 불안한 실존을 인정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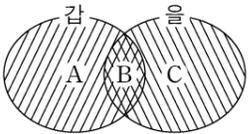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과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및 집행 권력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부터 정치사회 뿐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을: 사회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 의지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① 갑은 국가 권력 분립이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침해받아서 안 될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③ 을은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14.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마음의 바탕[心地]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自性)의 계(戒)이고,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定)이며,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혜(慧)이다. 자성이 문득 깨닫고[頓悟] 문득 닦으면[頓修] 늦고 더듬이 없으므로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p> <p>을: 치지격물(致知格物)이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사물 하나하나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가 이른바 천리(天理)이다. 천리를 사물 하나하나에 온전히 실현하면 사물 하나하나는 그 이(理)를 얻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10px;"> <p>&lt;범례&gt;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 기>

ㄱ. A: 오온(五蘊)으로 이뤄진 '내가 영원하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ㄴ. B: 평범한 사람은 이론적 학습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ㄷ. B: 이미 마음에 각취된 이상적 인간됨을 발현해야 한다.  
 ㄹ. C: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여 천리에 도달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그리스도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세속의 나라는 신의 떨시에까지 이르는 자기애를 통해서, 천상의 나라는 신을 사랑하고 자신조차도 경멸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다. 전자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고 후자는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데, 후자가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이라는 점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을: 모든 것들은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이며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궁극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 ① 갑: 악은 선의 결여이며 자유 의지 남용에서 비롯된 실체이다.
- ② 갑: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 ③ 을: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조화로 완성된다.
- ④ 을: 이성을 통해 신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갑, 을: 인간은 이성적 선택을 거듭함으로써 지복(至福)에 이른다.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16. 현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도덕적 삶의 원천은 인간의 상호 작용을 넘어서지 않는다.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을 하게 된다.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상대방을 위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러한 실천의 동기를 부여한다.

을: 나는 과거와 함께 태어났다. 그리고 이 과거로부터 개인 주의적 방식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나의 현재 관계들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정체성의 소유와 사회적 정체성의 소유는 일치한다.

- ① 갑: 배려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실천 가능한 것이다.
- ② 갑: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다.
- ③ 을: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인간의 품성과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④ 을: 개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역할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 ⑤ 갑, 을: 도덕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다.

17.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絃)들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 되는 것처럼 모든 정념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정념에 상응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타인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을: 우리를 외적의 침입과 서로 간의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동의 권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번성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체인 주권자에 양도하고,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다.

- ① 갑: 인과에 대한 추리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② 갑: 의지의 방향에 대해 이성적 정념은 상반된 결정을 내린다.
- ③ 을: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적 합의로 구성된다.
- ④ 을: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 없이도 지속된다.
- ⑤ 갑, 을: 도덕은 인간에게 부과된 초월적 존재의 명령이자 요구이다.

18.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분배 정의에 관한 기존의 원리들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반면 주는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다. 그러므로 분배 정의를 논함에 있어 '~에 따라 받을 만한'이란 표현을 '~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이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을: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직위와 직책은 기본적인 자유 및 기회의 평등 모두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은 그것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① 갑: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 ② 갑: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 ③ 을: 최소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 합의 이전에 보장된다.
- ④ 을: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무관심하다.
- ⑤ 갑, 을: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 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p>갑: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p> <p>을: 선(善)에 대한 지식은 무지의 자각과 영혼의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이를 행함으로써 선한 삶을 살 수 있다.</p> <p>병: 비록 선을 알고 있다 하여도 인간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이유는 덕 있는 행위를 습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
(나)	

- ① A, F: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 ③ C: 의지박약 때문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간과한다.
- ④ D: 덕의 실천은 참된 앎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한다.
- ⑤ E: 선은 현실 세계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다.

20. 다음은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고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방임적 질서에서 비롯된 대량 실업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올바른 분석을 통해 효율과 자유를 보존하되 그 병폐를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 경쟁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경쟁은 권력의 자의적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들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자유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세심하게 배려된 최소한의 법적 틀이 필요합니다.



- ① 갑: 시장의 자연적 조화 기능으로만 대량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
- ② 갑: 효율을 저해하는 병폐 치유를 위해 국가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 ③ 을: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막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④ 을: 공유제와 계획경제의 법적 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⑤ 갑, 을: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를 인정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자신과 신과 사물을 파악하며, 항상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고 드뭅니다. 그런데 모든 고귀한 것은 드물 뿐만 아니라 어려운 법입니다.



- ①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이성을 통해 인식하려고 힘쓴다.
- ② 모든 감정과 욕망을 버리고 초월자인 신의 명령에 복종한다.
- ③ 모든 것의 창조주인 인격신이 부여한 계율을 철저히 따른다.
- ④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유롭게 삶의 목적과 방법을 택한다.
- ⑤ 신이 부여한 자유 의지를 통해 삶의 필연성을 극복해 나간다.

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정의 윤리가 놓친 배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에 걸맞는 도움을 주어야 하며, 배려받는 사람 또한 상대방의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발휘되기 힘들 때 요청된다. 의무감에서 남을 돕는 윤리적 배려보다는 욕구와 성향에 따라 남을 돕는 자연적 배려가 도덕적으로 선호된다.

- ① 배려 윤리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의존성과 유대감을 중시한다.
- ② 배려보다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③ 자연적 배려는 이성애에 의해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실천된다.
- ④ 자연적 배려는 모성애와 같은 윤리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
- ⑤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할 수 없다.

3.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을: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정할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동의로 정부가 구성되며, 이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존을 주목적으로 한다.

- ① 구성원의 안전 보장이 사회 계약 체결의 결과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사회 계약이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사회 계약의 안정성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에 비례함을 모르고 있다.
- ④ 자기 보존 욕구의 실현이 사회 계약 합의를 위한 토대임을 간과한다.
- ⑤ 계약을 위반한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정당함을 간과한다.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앎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앎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고등학생 A는 최근 TV 방송을 보다가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소식을 들었다. A는 '나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부를 할지 망설이고 있다.

- ① 남을 돕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 ② 남을 돕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③ 남을 돕는 행위는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④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길러야 합니다.
- 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의 행복과 무관함을 알아야 합니다.

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천지만물은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 새의 울음소리 역시 시천주 소리이다. ○ 개벽(開闢)의 운이 회복되었으니, 우리 도(道)의 덕을 세상에 펼쳐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한울이 명하신 바이다.
(나)	제자: 새로운 개벽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 _____ ㉠

- ①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일상에서 수행하라.
- ② 남녀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미물(微物)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 ③ 모든 규범을 버리고 자연을 따르면서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 ④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천주교의 교리를 신봉하고 지켜라.
- ⑤ 유교적 도덕과 신분 질서를 따르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워라.

6. 그리스도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의 행복은 신에 대한 완전한 인식, 신의 향유, 그리고 신과의 합일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의 은총을 통해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신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을: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벌부를 사게 되면 죄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완전한 회개를 통해 사면과 신의 은총을 충분히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 ① 갑: 신은 선악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이다.
- ② 갑: 인간은 신을 이성적으로 향유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른다.
- ③ 을: 인간은 자유 의지만으로도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④ 을: 성서만이 진리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 ⑤ 갑, 을: 개인의 신앙보다 교회의 종교적 권위가 더 중요하다.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7~8]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그것에 탄 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 연후에 측은해 하는 마음[惻隱之心]이 발현한다. 그 어린아이를 보고 측은해 하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이른바 기가 발한다는 것이요, 측은해 하는 마음의 근본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가 탄다는 것이다.

을: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탄 것이다. 기가 따르지 않는 이는 드러날 수 없고 이가 타지 않는 기는 이기적 욕심에 빠지게 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외부의 자극을 받은 것이고, 측은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情)이 움직인 것이다.

7. 다음의 학생이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교사: 갑, 을은 사단과 칠정을 이나 기와 관련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단과 칠정은 각각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갑, 을의 입장에 대해 말해 볼까요?

학생: \_\_\_\_\_ ㉠

—<보기>—

- ㄱ. 갑은 도덕 감정을 일반 감정의 순전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 ㄴ. 을은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의 연원[所從來]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측은해 하는 마음을 기가 발하여 드러난 도덕 감정으로 봅니다.
- ㄹ. 갑, 을은 사랑[愛]이라는 일반 감정과 측은해 하는 마음이 사실상 별개로 분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덕(四德)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확충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면 인의예지라는 이름[名]은 끝내 성립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측은해 하면서도 가서 구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에 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① 사덕을 모든 사람이 지닌 마음의 기호(嗜好)로 보아야 한다.
- ② 사덕을 사단의 확충 이전에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사단을 사덕이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로 보아야 한다.
- ④ 사단을 일상에서 선을 실천해야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사단을 사덕의 시작[始]이 될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9. 다음 사회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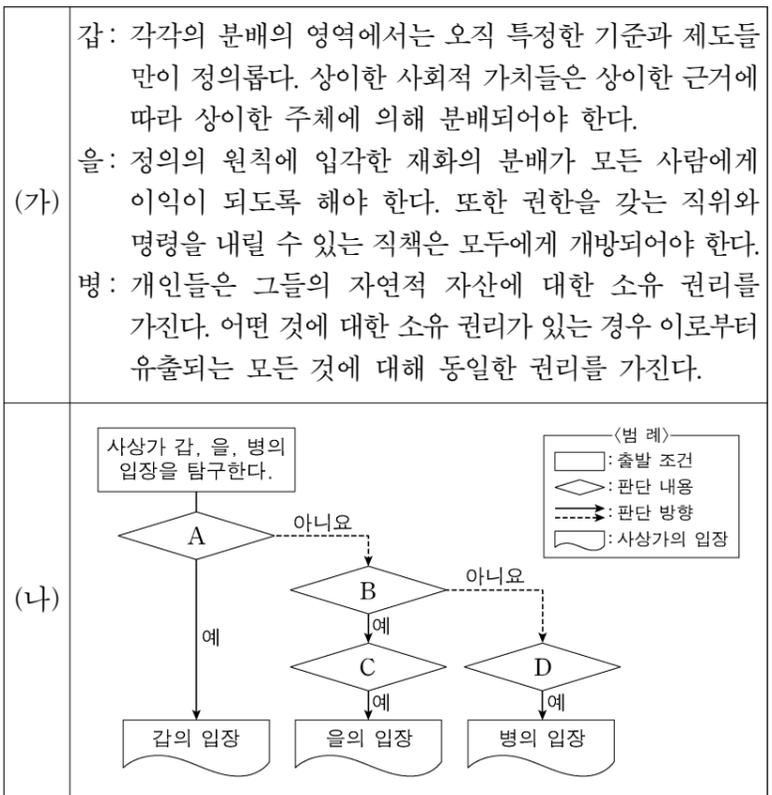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보장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 사회는 포괄적인 종교적·철학적·도덕적 교의가 지배하는 공동체와 구별되며, 정의에 대한 합리적 견해가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수용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이다. 안정적인 정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념들이 중첩되는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

- ㄱ. 국가는 다양한 신념체계를 단일한 신념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 ㄴ. 국가는 시민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개입해야 한다.
- ㄷ. 국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구성적 공동체이다.
- ㄹ. 국가는 공적 의사 결정에서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A: 한 분배 영역의 가치가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야 하는가?
- ㄴ. B: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 제도에 의해 개선되어야 하는가?
- ㄷ. C: 모든 사람의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공정한 기회 균등을 제한할 수 있는가?
- ㄹ. D: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다면 빈부의 격차도 정당한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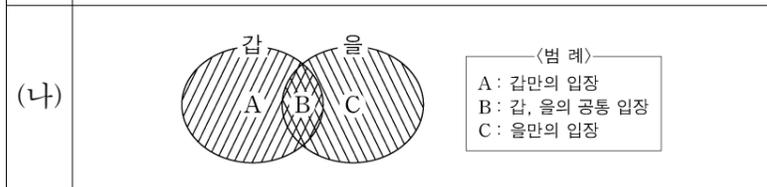
11.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은 긍정,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국가는 자연의 창조물이며 완성된 형태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국가를 떠나 살 수 있는 자는 신이거나 짐승뿐이다. 인간은 본래 국가를 필요로 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어떠한 참된 정의도 존재할 수 없다.  
 을: 정부는 시민에게 유용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복종의 동기는 구성원들이 정부를 통해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는 이익 관념에 기초한다. 만약 이 이익이 사라지면 복종의 의무도 사라진다.

- ① 최선의 삶을 구현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② 다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의감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③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④ 구성원들의 명시적 동의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⑤ 정부의 공공재 제공에 따른 혜택의 향유가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12.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식과 부모에게는 자식과 부모의 이치[理]가 있고, 신하와 군주에게는 신하와 군주의 이치가 있다. 사람의 양지(良知)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을: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효(孝)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 충(忠)의 이치를 군주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 하나 하나에 온전하게 실현해야 한다.



<보기>  
 ㄱ. A: 양지는 하늘이 부여한 성(性)이자 내 마음의 본체이다.  
 ㄴ. B: 양지는 군자와 소인의 구별 없이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ㄷ. B: 양지의 발현을 통해 타고난 성정(性情)을 바로잡는다.  
 ㄹ. C: 양지는 실천(行)과 서로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질제란 쾌락과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는 지혜나 용기와 달리 나라 전체에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질제란 쾌락의 과도함과 모자람, 즉 방탕과 무감각이라는 두 악덕 사이의 중용입니다. 또한 절제는 본성에 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며, 습관에 의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  
 ㄱ. 갑: 절제는 이성이 욕망을 다스려야 갖출 수 있는 덕이다.  
 ㄴ. 갑: 절제는 개인의 영혼과 관계없는 공동체의 탁월함이다.  
 ㄷ. 을: 절제는 실천적 지혜가 없다면 형성될 수 없는 덕이다.  
 ㄹ. 갑, 을: 절제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지인(至人)은 무기(無己)이다. 그러므로 그는 천지 본연의 모습을 타고 여섯 가지 기의 변화를 제어하여 무궁한 세계에 노닌다[遊]. 그러니 도대체 무엇에 의존할 것이 있겠는가!  
 을: 물질[色]은 무아(無我)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보기>  
 ㄱ. 갑은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항상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세계를 주재하는 절대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리를 파악하려면 먼저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인식의 제1원리를 찾아야 한다.  
 을: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인간의 정신을 흥미하게 하고 진리를 얻을 수 없게 한다. 인간은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학문을 혁신할 수 있다.

- ① 갑은 관찰과 실험을 진리 탐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
- ② 갑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을은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지성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감각적 경험은 객관적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실제적 유용성을 지닌 지식만을 참된 지식으로 본다.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1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길 바라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해라.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 두렵다는 믿음이 두려운 것이다.  
 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안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대체 불가능한 각자의 고유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 ① 갑: 두려움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정념이다.
- ② 갑: 죽음의 공포는 최고의 정신적 쾌락을 누릴 때 극복된다.
- ③ 을: 인간만이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
- ④ 을: 불안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⑤ 갑, 을: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17.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찬하며,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지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을: 가장 훌륭한 도(道)가 행해지면 천하는 모두의 것[公]이 된다. 현명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유능한 자에게 관직을 주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친다.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홀로 남은 노인이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이성과 법의 손길로 더없이 행복한 구조를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토대가 된다.  
 을: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들로 쓰일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위의 도덕성은 오직 보편적 도덕 법칙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보기>  
 ㄱ. 갑: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ㄴ. 을: 도덕의 목적은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다.  
 ㄷ. 을: 의무가 문제일 때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ㄹ. 갑, 을: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라야 도덕적 행위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국가가 시장 질서를 부정하면 인간은 노예의 길로 가게 된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자생적 질서는 위대한 창조와 성장을 실현시킨다.  
 을: 국가가 소비 성향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업은 증가된다. 유효 수요를 창출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완전 고용에 기여하고 실질 소득을 증가시킨다.  
 병: 사회주의 단계에서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기존의 소유 관계와 가장 철저히 단절하는 혁명을 통해 가능하다.

(나)

- ① A: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 사적 소유를 인정해야 함을 무시한다.
- ② B: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 ③ C: 시장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켜야 함을 무시한다.
- ④ D: 경제적 불평등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해소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⑤ E: 국가의 역할은 자유 경쟁의 원리 실현에 있음을 간과한다.

20.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놓아둔 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放心]을 찾는 것이다.  
 을: 예(禮)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규범이고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떨치는 길이고 공적과 명성을 올리는 요체이다. 군주가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직을 훼손시키게 된다.

<보기>  
 ㄱ. 사람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ㄴ. 예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성인이 제정한 것인가?  
 ㄷ. 통치자의 덕성에 의해 백성을 교화(教化)하여야 하는가?  
 ㄹ. 자신을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군자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원상(一圓相)을 진리로 믿고 수행하여 모든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 ② 유교의 오륜(五倫)을 부정하고 서양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③ 내 마음이 네 마음인[吾心即汝心]을 깨달아 인간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 ④ 사물에 대한 분별적 지식을 버리고 소요(逍遙)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⑤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달아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노력해야 한다.

2.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물에 있어서의 중간은 각각의 끝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과 2의 산술적 중간은 6이다. 그러나 인간과 관련해서는 산술적 방식으로 중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관련해서 중간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것이다. 하루에 6므나\*의 식사는 성인 운동선수에게는 적겠지만 어린 선수에게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므나(mna): 고대 그리스의 무게 단위

<보 기>

ㄱ. 중용이 무엇인지 알면 의지가 나약해도 반드시 중용을 실천한다.  
 ㄴ. 인간의 최고선으로서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ㄷ. 중용은 모든 행위에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ㄹ. 지성적 덕에 속하는 실천적 지혜로 중용의 상태를 알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사람들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식일 뿐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이익을 증진한다.

을: 사람들 각자의 이익 추구가 자연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낙관일 뿐이다. 이러한 낙관은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간과한 것이다.

<보 기>

ㄱ. 갑: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원동력은 개인의 이타심에 있다.  
 ㄴ. 갑: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ㄷ. 을: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ㄹ. 갑, 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에 의한 이익 추구를 허용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앎[知]은 실행[行]의 시작이고 실행은 앎의 완성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앎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실행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되고, 실행에 대해서만 말하더라도 앎은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된다.

(나)

	(A)			(C)			
				(B)			

[가로 열쇠]  
 (A): 말한 그대로 실천하여 말[言]과 행위[行]가 하나로 같아짐  
 (B):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예) 플라톤의 4주덕: ○○, 용기, 절제, 정의

[세로 열쇠]  
 (C): ... 개념

- ① 도덕적 인식[知]을 도덕적 실천[行]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경전에 대한 학습에 의존하여 양지(良知)를 최대한 확충하는 것이다.
- ③ 마음 밖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지극한 데까지 궁구하는 것이다.
- ④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 ⑤ 마음의 본체인 성(性)과 그 작용인 정(情)을 통괄하여 주재하는 것이다.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은 학문의 탐구를 통해 오류가 없는 지식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름다움과 종교 등에 관한 사변적 지식은 도구적 목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변적 지식은 도구적 목적과 관련될 때에만 일상의 일부가 되며,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도 진리 그 자체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에 유용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과 무관하게 진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변적 학문과 과학은 사회에 책임있는 학자들에게 위안을 줄 뿐입니다.



- ① 과학적 지식과 도덕적 지식 모두 삶을 개선할 때 가치를 가진다.
- ② 과학적인 검증으로 확실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 ③ 지식은 인간의 환경 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 ④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이론과 지식을 중시해야 한다.
- ⑤ 학문적인 탐구는 사회의 진보나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입법권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임된 권력이다. 절대 군주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보다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국가 권력을 분할하는 것이 낫다.  
 을: 입법권은 주권의 파생물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권력을 주권의 일부로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도 없다.

- ① 갑: 인간의 소유권은 절대 군주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갑: 시민은 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입법부에 저항할 수 없다.
- ③ 을: 통치자는 일반 의지를 대행하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 ④ 을: 주권은 시민이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대표되어야만 한다.
- ⑤ 갑, 을: 사회 계약 이후에 국가는 계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이 없다.

7.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체제로 해석한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어떠한 분배 상태가 행복의 최대 총량을 산출하는지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의 체제는 우연한 여건들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반면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은 공리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게임이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등 공정했다면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 의미하는 것은 ㉠는 것이다.

- ① 공정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균등한 분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
- ②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기준은 있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절차는 없다
- ③ 공정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 ④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 ⑤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도,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절차도 없다

8.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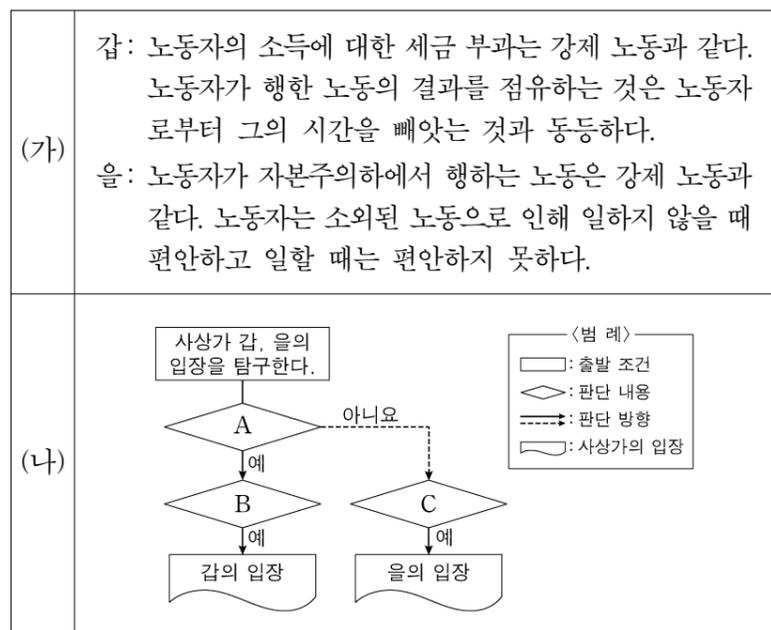
갑: 일심(一心)의 법(法)을 세운다는 것은 법에 대한 의심을 없애는 것이다. 대승(大乘)의 법에는 오직 일심만이 있으며, 일심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 일심의 법을 세워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의 두 가지 문(二門)에 들어가야 한다.  
 을: 얼어붙은 연못이 온전히 물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햇볕의 따뜻한 기운을 빌려야 실제로 녹여서 물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도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

<보 기>

ㄱ. 갑: 일상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해야 한다.  
 ㄴ. 갑: 우둔한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ㄷ. 을: 점수의 요체는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것이다.  
 ㄹ. 갑, 을: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 사적 소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상적인 분배가 가능한가?  
 ㄴ. B: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부유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부당한가?  
 ㄷ. B: 노동 투입은 최초 취득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인가?  
 ㄹ. C: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신이 느낀 것들은 자기 그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모두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스스로가 지혜의 척도라면 무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지의 자각과 영혼의 수련을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보기>

- ㄱ. 갑: 각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 ㄴ. 을: 덕은 지식이며 덕을 갖춘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 ㄷ. 을: 선을 알면서도 그릇된 행위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 ㄹ. 갑, 을: 이성보다 사회의 관습에 따라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그림쇠는 동그라미, 곱자는 네모꼴, 먹줄은 곧음, 저울은 공평함의 표준이듯 예(禮)란 올바른 도(道)의 기준이다. 군자는 스승과 법도(師法)를 따르고 예의를 실천하는 자이며 소인은 본성을 좇아 멋대로 행동하고 예의를 어기는 자이다.

을: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림쇠, 네모꼴을 만드는 곱자, 직선을 긋는 먹줄을 빌어 사물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드는 것은 본성을 해친다. 예악에 따라 몸을 곱히고 인의(仁義)를 좇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잃게 한다.

- ① 갑: 예를 기준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 ② 갑: 조화로운 사회를 위하여 구성원 각자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 ③ 을: 인의를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며 타고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 ④ 을: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본성을 해치는 예악을 거부해야 한다.
- ⑤ 갑, 을: 성(性)을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樸)로 보아야 한다.

1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는 모든 행동을 쾌락에 따라 택하거나 피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에 혼란이 없는 상태에 기여할 때 가치를 지닌다.

을: 쾌락의 유혹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념에 이끌리지 말고 자연의 섭리인 이성애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 ① 갑: 이성적인 인식을 통하여 모든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모든 고통을 제거하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③ 을: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여 운명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④ 을: 인간 본성과 우주의 본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안 된다.
- ⑤ 갑, 을: 공적인 삶보다는 은둔하며 사는 삶을 중시해야 한다.

13.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理)는 물에 비유할 수 있는데, 물이 본래 맑은 것은 사람의 성(性)이 본래 선(善)한 것과 같고, 물을 담은 그릇의 깨끗하고 더러움이 똑같지 않은 것은 사람의 기질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도 움직이는 것은 기(氣)가 발(發)할 때에 이가 타는[乘] 것이다. 그릇이 움직이면 물도 반드시 움직이지만 물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가 스스로 발하지 않는 것과 같다.

- ① 기와 달리 이는 무형(無形)의 존재이지만 운동성을 지닌다[有爲].
- ② 칠정(七情)은 기가 발할 때 이가 올라탄 것으로 순선한 감정이다.
- ③ 이는 보편적인 것으로 두루 통하지만[通] 기는 국한된다[局].
- ④ 발현하게 하는 까닭[所以]은 기이고 발현하는 것은 이(理)이다.
- ⑤ 기질을 바로 잡는[矯] 수양으로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14.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 안에 있는 법이 영원법이고, 영원법이 인간에게 분유(分有)되어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본성을 포함하여 공동선을 위한 실천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자연법의 제1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변적이고 다양한 인간의 일에 추상적인 자연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정법이 필요하다.

- ① 실정법은 신이 제정한 것이고 실정법의 제정 근거는 영원법이다.
- ② 자연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현재에서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다.
- ③ 신의 의지인 영원법이 불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정법도 불변한다.
- ④ 영원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자연법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다.
- ⑤ 자연법에 어긋난 실정법은 정의롭지 못하므로 정당성이 없다.

15.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죽음은 부스럼이 사라지거나 종기가 터지는 것과 같고, 삶은 몸에 균살이 붙거나 흑이 달리는 것과 같다. 진인(真人)은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속세를 벗어나 한가롭게 무위(無爲)의 경지에서 자유로이 노닌다.</p> <p>을: 죽음은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는 이들을 휩쓸어 간다. 오온(五蘊)의 결합인 몸이 이지랑이처럼 무상(無常)한 것임을 알고 몸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면 죽음을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른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 ㄱ. A: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 ㄴ. B: 자연의 순리대로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해야 한다.
- ㄷ. B: 현재의 삶에서 쌓은 업(業)에 의해 내세의 삶이 결정된다.
- ㄹ. C: 삶과 죽음은 무명(無明)으로 인해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유의 이념은 나를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나는 선의지를 의식하고, 나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의지의 자율성에 알맞게 된다. 선의지는 감각적 욕망을 따르는 악한 의지에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도덕 법칙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그 법칙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 ① 자율적이지 않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 ②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도덕 법칙을 설정해야 한다.
- ③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현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의무는 개인에게 도덕 법칙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자율성에 어긋난다.
- ⑤ 자신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하지 않아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1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유덕한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위인들의 업적을 모범으로 삼는다. '실천'은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의 품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전통의 업적을 배우는 방법이다.

을: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에서의 보살핌과 책임에 있다. 정의의 입장이 전제하는 공정성보다 인간관계에 내포된 인간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보 기 >

- ㄱ. 갑: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 ㄴ. 을: 공정성의 가치와 보살핌의 가치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 ㄷ. 을: 배려보다 권리를 도덕성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 ㄹ. 갑, 을: 추상적 도덕 원리보다 삶의 구체적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8.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대장부는 예(禮)를 충성과 신의가 엮어진 것이며 혼란이 생겨나는 시작이라고 여긴다. 도(道)를 잃게 되면 덕(德)이 나타나고 덕을 잃게 되면 인(仁)이 생긴다. 인을 잃게 되면 의(義)가 나타나고 의를 잃게 되면 예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을: 대장부는 천하의 가장 넓은 집(仁)에 거처하며,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禮)에 서서, 천하에서 가장 큰 도(義)를 실행한다.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면 백성과 함께 도를 실행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도를 홀로 굳게 지킨다.

- ① 성왕(聖王)의 교화를 거쳐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 ②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인 마음(四端)을 확충하여야 하는가?
- ③ 군주가 제정하고 확립한 외면적 사회 규범(禮法)을 따라야 하는가?
- ④ 정치적으로는 왕도를 추구하고 패도(霸道)를 부정해야 하는가?
- ⑤ 이상적 인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하는가?

1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공감은 인간 본성에서 매우 큰 힘을 지닌 원리이다. 우리는 공감을 통해 우리와 상관없는 이웃이나 사회의 선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

을: 최대 행복의 원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 ① 갑: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는 감정보다 이성 근거한다.
- ② 갑: 인간은 공감 능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를 승인한다.
- ③ 을: 개인의 쾌락은 배제하고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을: 질적으로 바람직한 쾌락일수록 고통의 양은 언제나 감소한다.
- ⑤ 갑, 을: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중시해야 한다.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맹자는 사단(四端)의 발(發)을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본래 마음은 이(理)와 기(氣)의 합이지만 이(理)를 위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위주로 말하면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르는 것이다.

을: 맹자는 사단을 논할 때 반드시 성선(性善)을 사단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것은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일[行事]로 말한 것이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공경하면서도 절하여 맞이하지 않는다면 예(禮)라고 할 수 없다.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사양지심(辭讓之心)을 인간의 마음에 예라는 덕(德)이 내재함을 알게 해 주는 실마리로 보았으며, ㉡ 사욕을 제거하기 위해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수양[主一無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을은 ㉢ 인간이 사양지심을 실천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된 덕을 예라고 보았으며, ㉣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부여된 영지(靈知)의 기호를 확충하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사단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야 한다.
- ②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모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더 많은 욕구 충족을 위해 재산을 많이 모아야 한다.
- ④ 죽음은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므로 신에게 의지해야 한다.
- ⑤ 참된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충족은 멀리해야 한다.

2.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무가 곧아 먹줄에 맞는다 해도 구부러야 바위가 되고, 쇠는 솥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그러니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켜야 인간은 비로소 선해진다. 사람들이 본성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틀림없이 혼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보 기>  
 가. 인간은 누구나 노력[偽]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나. 본성의 선한 단서를 확충하여 도덕적 덕을 실현해야 한다.  
 다. 인의(仁義)는 배움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르. 선왕의 가르침을 익히기보다는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인간 본성이 지금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 자신의 고유한 선을 찾는 자는 누구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과 우주 전체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을: 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유덕한 사람은 지혜롭고 올바르지만 부덕한 사람은 무지하고 올바르지 못하다. 지혜와 덕과 행복은 일치한다.

- ① 갑: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 ② 갑: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정념의 원인이다.
- ③ 을: 모든 사회에 보편타당한 객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을: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
- ⑤ 갑, 을: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이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4.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싸움이 끝나도 궁지를 갖거나 잘난 척하려 하지 말고, 교만 하지도 말라. 싸움이 끝나면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하고, 힘을 자랑하지 말라.  
 ○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더라도 쓸 일이 없다. 이웃 나라가 서로 보이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서로 오가지 않는다.

- ① 도둑은 법령이 많아지고 엄격해질수록 줄어든다.
- ② 백성은 생명을 중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통치자는 무력으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 ④ 현자(賢者)를 높이지 않아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성인(聖人)은 사람들의 마음은 비워 주고 욕망은 약하게 해 준다.

5.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선한 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했다. 선하고 아름다운 신이 만든 만물은 아름답고 선하다. 신은 선으로서 선한 것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신은 세상을 신의 국가와 인간의 국가로 나누었고, 인간 삶의 모든 역사는 신의 국가의 승리로 귀결된다.

<보 기>  
 가.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과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는 신의 피조물이다.  
 다.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을 넘어선 신앙적 체험의 대상이다.  
 르.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만으로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6.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정치는 이름을 바로 잡는 것[正名]에서 시작된다. 이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지지 않고,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을: 선비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인(仁)이다.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의(義)이다. 인에 머물며 의를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이 이루어진다.

<보 기>  
 가. 갑: 군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형벌의 공정성을 우선시한다.  
 나. 갑: 어진 사람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한다.  
 다. 을: 왕도 정치는 백성의 생업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르. 갑, 을: 예(禮)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르
- ④ 가, 다, 르    ⑤ 나, 다, 르



[12~13]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성(性)에 대해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듯이 정(情)에 대해서도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즉,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켜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다.

을: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이면 정이 되는데, 발하는 것은 기고 발하는 까닭은 이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까닭이 없으니 어찌 이발(理發)이 있겠는가? 기발(氣發)이 있을 따름이다.

12.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이와 기는 모두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것인가?  
 ㄴ. 이는 작용이 없으며 만물에 두루 갖추어져 있는가?  
 ㄷ. 칠정은 선 또는 악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가?  
 ㄹ. 사단은 이가 마음 밖에서 발하여 드러나는 것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린은 선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선한 것이 공(功)이 되지 않고, 승냥이는 악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악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권능[自主之權]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이 선을 행하면 자신의 공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

- ① 인간이 본래 타고난 성(性)이 곧 이치[理]임을 간과한다.
- ② 사양지심은 예의 실마리가 아닌 예의 시작[始]임을 간과한다.
- ③ 거경(居敬)의 실천을 통해 이기적 욕망을 없애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사단(四端)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는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⑤ 인간이 하늘[天]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음을 간과한다.

14.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생산하는 자연, 즉 신은 만물의 원인이다. 신은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도 설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의거해서만 존재하고 활동한다. 그러나 생산된 자연은 신의 속성의 모든 양태이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 ① 인간의 자유는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
- ② 신의 양태인 자연 만물 안에는 다수의 실체가 존재한다.
- ③ 인간은 신의 본성을 파악할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
- ④ 신뿐만 아니라 인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원인이 되어 존재한다.
- ⑤ 신의 자유 의지로 산출된 자연은 신이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1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적론적 인간관을 거부하고 도덕의 합리적 정당화만을 시도했던 모든 기획이 실패하여 우리는 덕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덕의 전통, 즉 목적론적 인간관에서 출발하여 덕에 주목하는 고전적 전통으로 돌아가 그것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통의 담지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통 속에 내재된 '실천'에 참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삶의 서사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 ① 모든 덕은 일반적 규칙들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② 사회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편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삶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 타고난 삶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 ④ 좋은 삶의 본질적 요소인 역사적 맥락과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
- ⑤ 행위자의 덕성보다 도덕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16.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순일(純一)한 것과 섞이 없는 것이 정성[誠]이며, 내 마음을 공경함[敬]이 곧 경천(敬天)의 도를 바르게 아는 길이다. 마음을 믿는 것[信]은 곧 한울을 믿는 것이며, 한울을 믿는 것은 곧 마음을 믿는 것이다.

을: 사학(邪學)의 서책과 천주(天主)의 초상이 들어오면 사람마다 사학을 하게 되니,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게 된다. 인륜을 멸하고 오상(五常)을 해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와 금수(禽獸)의 지경이 되는 것이다.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사람은 존귀하여 신분의 구별이 없는 평등한 존재라고 보았으며, ㉡ 한울님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을은 ㉢ 사람이 예절과 의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금수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 서양의 문물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해(害)가 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갑, 을은 모두 ㉤ 유교적 가치만을 올바른 것으로 보고 이를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로운 분배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을: 정의로운 분배는 영역 간 가치의 일반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 X는 어떤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X의 의미와 관계없이 Y를 소유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

<보기>  
 ㄱ. A: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선택되어야 하는가?  
 ㄴ. A: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불평등을 제거해야만 하는가?  
 ㄷ. B: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된다면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는 정당한가?  
 ㄹ. C: 가치의 분배 기준은 해당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다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은 저절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정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절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을: 정부의 경제 계획은 우리 삶의 일부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통제는 우리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통제한다. 경제 계획은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끈다.

<보기>  
 ㄱ. 갑: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ㄴ. 갑: 정부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ㄷ. 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ㄹ. 갑, 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시장 원리를 인정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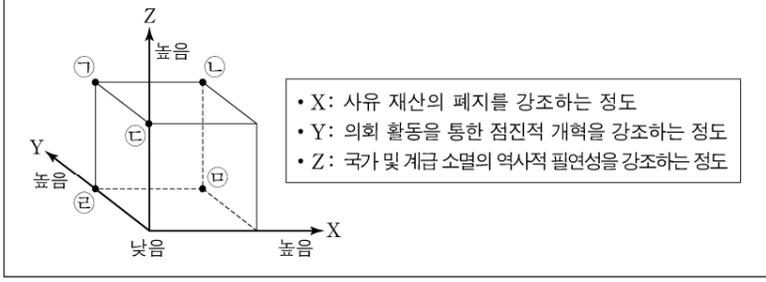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과 더불어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두어야 한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각자 자연권을 향유하며 자기 보존을 위해 경쟁한다. 그러한 경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에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보기>  
 ㄱ. 갑: 주권은 구성원의 동의하에 군주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ㄴ. 갑: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ㄷ. 을: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폭력은 부당한 것이다.  
 ㄹ. 갑, 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기계 장치의 확대와 분업으로 자립성을 상실했다.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품이 되었고, 그들의 임금은 노동이 혐오스러워질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에 우리는 계급투쟁을 통해 낡은 생산관계를 폭력적으로 청산할 것을 촉구한다.  
 (나)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산력에 비해 노동자는 언제나 빈곤했다. 이에 우리는 노동 착취를 반대하고 빈부 격차를 축소하여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한다. 권위주의 체제를 동반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사회주의의 최고 형태는 민주주의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에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자네의 편지는 잘 읽었는데, 나의 생각은 자네와 다르다네.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니 그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네. 인간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어,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네.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분별[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 분별에는 분수를 지키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분수를 지키는 것에는 예[禮]보다 큰 것이 없네. …(후략)…

- ① 모든 인위적인 규범을 초월하여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 ②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 ③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空]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본성을 변화시켜 예의와 법도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일체의 욕구를 배제하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사람에게는 지식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가르쳐질 수 없다. 덕이 일종의 지식이라면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덕은 지식이며 행복이다.  
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설령 어떤 것을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 ① 갑: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
- ② 갑: 올바른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을: 부단한 진리 탐구를 통해 객관적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을: 선에 대한 기준은 인식할 수 없지만 궁극적인 선은 존재한다.
- ⑤ 갑, 을: 감각적 경험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3.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불효자도 효자라고 칭찬하면 기뻐한다. 사람은 본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불효자도 실제로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기뻐하는 것이다.
- 사람들이 선하고자 한다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하고자 한다면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天理]이자 마음의 경향성이다.  
ㄴ.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선행이나 악행을 할 수 있다.  
ㄷ. 선한 행위는 본성에 내재된 사덕(四德)을 실천하는 것이다.  
ㄹ. 형구(形軀)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부여된 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성의 지시를 언제나 간직한다. 이성이 기개를 지배하고, 기개는 이성에게 복종하며 협력해야 한다.  
을: 용기 있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에 비해 무모하고, 무모한 사람에 비해 비겁해 보인다. 양극단의 두 성향은 대립적이며,中间的 성향은 양극단의 두 성향과 대립적이다.

- ① 갑: 욕구와 관련된 부분의 덕은 행복에 이바지할 수 없다.
- ② 갑: 실천적 지혜를 통해 파악한 중용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 ③ 을: 덕 있는 행위는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 ④ 을: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하여 유덕한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
- ⑤ 갑, 을: 덕을 이성으로 깨달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5.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중생(衆生)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그릇된 견해이다. 그것은 다만 허망한 요소들의 집합일 뿐, 거기에 중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여러 부품이 합쳐져 있는 것을 세간에서 수레라고 하듯이 오온(五蘊)이 인연에 따라 화합한 것을 잠시 중생이라 부를 따름이다.

		(A)			
	(B)				
		(C)			

(나) [가로 열쇠]  
(A): 민간 신앙, 불교 및 도교가 결합된 종교의식으로 연등회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국가적인 양대 행사 중 하나  
(B): 공평하고 올바름. 예) '○○ 무역'  
(C): 도가와 도교 사상의 근간이 되는 저술로서 "노자"라고도 불리는 경전  
[세로 열쇠]  
(A): ……개념

- ① 자신의 업에 따라 죽어서 다른 세계에 태어남을 뜻하는 말이다.
- ②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뜻하는 말이다.
- ③ 중도의 수행 방법으로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길을 뜻하는 말이다.
- ④ 모든 존재는 더불어 존재하며 인연에 따라 생멸함을 뜻하는 말이다.
- ⑤ 진리를 깨달아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뜻하는 말이다.

6.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다. 이성은 자연적 성향을 가진 모든 것을 선(善)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자연법의 첫째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을: 신을 열망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至福)을 바라는 것이며, 이것은 신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지상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형성되지만, 천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함으로써 형성된다.

<보 기>

ㄱ. 갑: 이성으로 파악한 자연법에 근거하여 실정법을 제정해야 한다.  
 ㄴ. 갑: 믿음·소망·사랑이라고 하는 종교적 덕을 함양해야 한다.  
 ㄷ. 을: 신은 악을 창조하여 자유로운 인간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ㄹ. 갑, 을: 완전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7.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각각 구분해서 말하면 사단에 있어서의 이(理)는 칠정에 있어서의 기(氣)의 관계와 같다. 사단이 바깥 사물의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것도 칠정의 경우와 같다. 다만 사단은 이가 발(發)함에 기가 따르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을: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고,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칠정 밖에 다른 정(情)은 없다. 사단은 다만 선한 정(情)의 다른 이름이니, 사단은 칠정 안에 있는 것이다. 어찌 사단과 칠정의 양변이 있겠는가?

◎ 학생 답안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이와 기는 모두 발하는 것이며, ㉡ 인(仁)은 이가 발한 것이지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을은 ㉢ 이는 발하게 하는 까닭일 뿐 스스로 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같다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경건한 마음[敬]을 항상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성인(聖人)은 백성들이 간교한 지혜와 욕심을 품지 않게 하고, 무위(無爲)로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현자를 높이지 않아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을: 지인(至人)은 만물을 각자의 본성에 맡겨 두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무궁하게 노닐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걸림이 없다. 소요(逍遙)의 경지는 지인의 마음을 밝혀 놓은 것이다.

<보 기>

ㄱ.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 분별적인 지혜를 쌓아야 하는가?  
 ㄴ. 인의의 덕을 수양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心齋] 하는가?  
 ㄷ.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ㄹ. 인위적인 문명을 거부하고 소박(素樸)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치지(致知)는 격물(格物)에 달려 있다.”라고 한 것은 나의 앎을 다하고자 함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치에 따라 더욱 궁구하여 그 지극함에 이르러야 한다.  
 을: 만약 ‘격물’을 ‘천하 만물 모두를 연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천하의 만물을 어떻게 다 연구한다는 말인가? 지금 초목에 대하여 연구했다고 해도 어떻게 나 자신을 진실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격’은 ‘바로 잡는다[正]’의 뜻으로, ‘물’은 ‘일[事]’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 ① 갑: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여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② 갑: 도덕적 수양을 통해 탁하고 치우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③ 을: 마음을 벗어나서는 이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물[事]도 없다.  
 ④ 을: 경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양지(良知)를 획득할 수 있다.  
 ⑤ 갑, 을: 천리를 보존하고 이기적 욕망을 제거해야 이상적 인간이 된다.

10.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고립된 자아는 어떠한 합리적 역사도 가질 수 없다. 나는 누군가의 형제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공간을 계승한다.  
 을: 보편적 권리는 공동체 의식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배려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관계를 중요시한다.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의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①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주체로 살아야 하는가?  
 ② 윤리적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③ 덕의 의미를 사회적이고 전통적인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하는가?  
 ④ 배려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도덕적 덕목인가?  
 ⑤ 윤리적으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가?

11.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으로 인해 인간은 정부에 복종한다. 안전과 보호라는 이익은 정부 제도 수립의 근원적 동기이자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원천이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일 때에는 결코 이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 이 이익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정부에 저항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정부에 저항하는 것에도 불쾌감을 느낀다.

- ① 안전한 삶은 정치 공동체가 없더라도 항상 쉽게 향유할 수 있다.
②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생겨난다.
③ 국가에 거주하는 이유만으로도 항구적인 복종의 의무가 부과된다.
④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유지와 무관하다.
⑤ 정부에 복종하기로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만 정치적 의무가 있다.

12.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라고 하였다. 일심(一心)이 미혹되어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며, 일심을 깨달아 끝없이 오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자는 부처이다. 그러므로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결사(結社)를 통해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을: 모든 존재는 생멸 없이 본래 적정(寂靜)하여 오직 일심이기 때문에, 이를 '진여문'이라 한다. 이 일심의 본체는 본래 깨달아 있지만 무명(無明)에 따라 생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멸문'이라 한다. 이러한 생멸문에서는 여래의 본성이 숨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장(如來藏)'이라 말한다.

<보 기>
ㄱ. 갑: 화두를 활용한 선(禪)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ㄴ. 갑: 참마음의 본체는 지혜이고, 참마음의 작용은 선정이다.
ㄷ. 을: 일반 백성들도 염불 수행을 통해 극락왕생할 수 있다.
ㄹ. 갑, 을: 불교계의 종파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 하여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둘 것을 명령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재산 소유자를 공공 재산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반면 사람은 비자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자본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변하면 재산의 계급적 성격이 상실된다.

- ① 갑: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② 갑: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③ 을: 경쟁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계급 간의 갈등을 약화시킨다.
④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을 자본의 예속에서 해방시킨다.
⑤ 갑, 을: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서 비롯된다.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나는 오직 진리 탐구에 전념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여 내던져 버리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을: 나는 신을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인 실체로 이해한다.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보 기>
ㄱ. 갑은 사유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참된 행복이 자연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다고 본다.
ㄷ. 을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실체인 신을 자연이 아니라고 본다.
ㄹ. 갑과 을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유용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감 여부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원칙이다. 쾌락의 측정 기준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을: 준칙이란 주관적 실천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하다면 그 원칙은 객관적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은 쾌락의 양과 질에 있다.
ㄴ. B: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준수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
ㄷ. B: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원리가 있다.
ㄹ. C: 도덕 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체가 분해되면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정심을 추구하는 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단순히 오래 살려고 하기보다 가장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신체도 자연 만물처럼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심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에게 적절한 태도는, 죽음에 무관심하거나 죽음을 자연의 한 과정으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 ① 갑: 쾌락을 누리면서도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는 불가능하다.
- ② 갑: 죽음은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감각적인 경험의 대상이다.
- ③ 을: 불행은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정념에서 비롯된다.
- ④ 을: 이성적 판단에 따른 행동을 통해 운명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⑤ 갑, 을: 자연의 질서에 대한 순응은 유덕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1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개인의 자연적 재능은 단지 운일 뿐이며, 소득과 부의 분배는 자연적 재능이 갖는 자의적인 영향이 누적된 결과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p> <p>을: 개인의 자연적 재능이 운의 문제라는 사실로부터 자연적 재능이 공동의 자산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는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그 자신의 소유로 간주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div> <div style="font-size: small;">                 &lt;범례&gt;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gt; A{A}                 A -- "아니요" --&gt; C{C}                 A -- "예" --&gt; B{B}                 B -- "예" --&gt; J1[갑의 입장]                 C -- "예" --&gt; J2[을의 입장]             </pre>

<보 기>

- ㄱ. A: 다수를 위해 소수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가?
- ㄴ. B: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는가?
- ㄷ. C: 시정의 원칙에 따른 국가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가?
- ㄹ. C: 분배의 결과보다 소유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8.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절망할 수 있음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점이다. 그런데 사실 절망은 큰 불행이며 타락이다. 절망의 반대는 신앙이며, 신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을: 현존재는 불안을 통해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방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며, 본래적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현존재는 '세계-내-존재'이다.

- ① 갑: 인간은 참된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도 절망할 수 있다.
- ② 갑: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심미적 실존 단계에 속한다.
- ③ 을: 현존재인 인간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자이다.
- ④ 을: 현존재는 불안을 통해 실존적 삶의 가능성을 깨닫는다.
- ⑤ 갑, 을: 인간은 독자적 결단을 통해 자신의 참된 실존을 깨닫는다.

1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정신은 쇠약해져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도덕을 훈련함으로써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모든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을: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침이고, 수심정기(守心正氣)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 입도식은 한울님을 같이 모시겠다고 깊이 맹세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의혹을 깨뜨려 없애는 것은 정성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 ① 갑은 불교 개혁을 통해 불법(佛法)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였다.
- ② 갑은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③ 을은 시천주(侍天主)를 표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 ④ 을은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서양 과학문명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 ⑤ 갑, 을은 신분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의 도래(後天開闢)를 주장하였다.

20.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는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사적 소유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생산 증진에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나)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에 불과하다. 국가는 계획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고 작은 정부로 회귀해야 한다.

- ① (가)는 공유 재산과 사유 재산의 양립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 ② (가)는 모든 재화의 분배 기준으로 능력에 따른 분배를 지향한다.
- ③ (나)는 복지 정책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한 중세 정책을 지지한다.
- ④ (나)는 규제 완화 정책이 민간의 자율적 능력을 침해함을 강조한다.
- ⑤ (가), (나)는 시장 내의 경쟁이 공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고난 자연의 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禮)에 따라 행동한다.
- ②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 나간다.
- ③ 나와 남의 상호 연계성을 자각하고 남의 해탈을 위해 헌신한다.
- ④ 만물에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타고난 인의(仁義)의 덕을 함양한다.
- ⑤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소박하게 생활한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지혜는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로운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덕이다. 지혜는 영혼에서 이성과 관련된 덕이고, 기개와 관련된 덕은 용기, 욕구와 관련된 덕은 절제이다.  
 을: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동심을 유지한다. 실수를 하거나 해를 입어도 정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여기며,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에는 항상 무관심하다.

- ① 갑: 진리의 근원인 참된 실재를 현실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 ② 갑: 이상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절제의 덕이 필요하지 않다.
- ③ 을: 부와 명예 같은 것은 원하지도 피하지도 말아야 한다.
- ④ 을: 사회 참여를 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이성에 맞는 욕구 충족도 덕의 함양과 양립할 수 없다.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새나 짐승과는 함께 모여 살 수 없으니 내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인(仁)은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려야 사람들이 염치를 알게 된다.  
 을: 사람들도 새나 짐승과 함께 생활하고 만물과 함께 무리지어 나란하니 어찌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겠는가? 그들은 마치 무지(無知)한 듯 순진무구하여 덕과 떨어지지 않으며 아무런 욕심도 내지 않는다[無欲].

- ① 갑: 통치자는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
- ② 갑: 통치자는 재화의 고른 분배를 통해 사회적 화합을 꾀해야 한다.
- ③ 을: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문명에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 ④ 을: 덕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 ⑤ 갑, 을: 이상적 삶을 구현하려면 누구나 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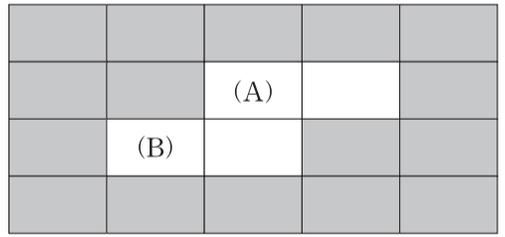
4.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우리는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면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을: 우리는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다. 한 행위가 가져다 주는 쾌락과 고통 각각의 총량은 계산될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개인 또는 사회에 일반적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 ① 모든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가?
- ②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억제해야 하는가?
- ③ 사회 전체 쾌락의 증대 여부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가?
- ④ 사려 깊고 고상한 행위가 도덕적인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인가?
- ⑤ 행복은 마음의 불안과 육체적 고통이 사라질 때 얻어질 수 있는가?

5.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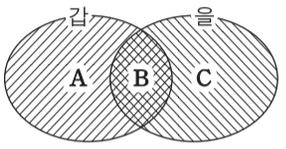
(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法]에 의지하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곧 진리를 보며, 진리를 보는 자는 곧 연기를 본다.



(나) [가로 열쇠]  
 (A): 인위적이거나 강제적 작위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  
 예) 노자의 '○○ 자연' 사상  
 (B): 외부 사물과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  
 예) 장자의 '□□ 일체' 사상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변화하는 현상계 속에는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 ②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될 만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③ 불멸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제기된 말이다.
- ④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 버리라는 말이다.
- ⑤ 모든 존재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독자적 '나'가 없다는 말이다.

6. (가)의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덕은 곧 지식이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나쁜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다. 정의든 절제든 용기든 모두 다 지식이다.</p> <p>을: 덕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사람'은 후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 반면,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후회할 줄은 아는 사람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ㄱ. A: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ㄴ. B: 이성과 추론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ㄷ. B: 삶의 목적인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  
 ㄹ. C: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갑은 중국 불교 사사가, 을은 한국 불교 사사가이다.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성(自性)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생각마다 반야로써 비추어 보아 법의 모습[法相]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되니 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성을 스스로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는 것이다.

을: 자성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도 습기(習氣)를 단번에 제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 나가 점차로 익힘으로써 공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점차로 닦는 것[漸修]이라 한다.

<보기>

ㄱ. 갑: 단박에 깨닫기 위해 선(禪) 수행과 경전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ㄴ. 을: 참선(參禪) 수행으로 본성을 자각하면 보살행이 필요 없다.  
 ㄷ. 을: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는 것이 수심(修心)의 방법이다.  
 ㄹ. 갑, 을: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아야[頓悟]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모든 사람이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탕으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가의 부가 증대될 수 있다.

(나) 모든 생산 부문의 경영 자체를 경쟁하는 개인들에게서 빼앗아 사회 전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 하에 공동 계획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보기>

ㄱ. (가): 자유경쟁 원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한다.  
 ㄴ. (나): 분업은 숙련공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결과적 평등을 실현한다.  
 ㄷ. (나): 생산 수단의 사적인 소유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다.  
 ㄹ. (가), (나): 필요에 따른 분배보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들이 모두 본성[性情]을 따르게 되면 틀림없이 혼란한 상태[暴]에 이르게 된다. 이에 반드시 스승[師]과 법도[法]에 따른 교화가 있어야 하며 예의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

을: 사람들을 무력으로 복종시키려 하면서 인(仁)을 행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패도(霸道)이다.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왕도(王道)를 실천하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보기>

ㄱ. 갑은 예를 기준으로 삼아 욕망[欲]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백성은 먼저 항심을 갖춰야 항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을은 인의(仁義)를 해치는 군주는 추방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법이나 예에 의한 정치를 모두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중세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행복은 이성(理性)에 따르는 삶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성적으로 내재하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덕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현세의 행복일 뿐이고, 영원한 행복은 신을 보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을: 행복은 오직 신앙으로 가능하다. 행복의 필수 조건은 영원한 생명인데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신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의 나라로 가야 한다.

- ① 갑: 신앙이 이성보다 우선하지만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② 갑: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이라도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  
 ③ 을: 신은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선의 결여인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  
 ④ 을: 신을 사랑하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⑤ 갑, 을: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11~12]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만약 칠정과 사단을 꼭 두 변(邊)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인성(人性)의 본연과 기질도 나뉘어 두 성이 될 것이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천리(天理)는 무위(無爲)인 것으로서 반드시 기(氣)의 기를 타야 움직이는[動] 것이니, 기가 움직이지 않고서 이(理)가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을: 만약 혼합하여 말한다면 칠정이 이와 기를 겸(兼)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그러나 칠정을 사단과 대립시켜 구분되는 것으로 말한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그 이름이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主)가 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11.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서 드러난 것임을 모르고 있다.  
 ㄴ. 칠정의 연원과 사단의 연원이 다르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ㄷ. 이는 발하는 까닭[所以]일 뿐 발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ㄹ. 기처럼 이도 자발적으로 동정(動靜)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갑, 을과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사심(四心)이 바로 사단이며, 사덕(四德)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측은(惻隱)을 확충하여 자상함의 극치에 이르면 인(仁)이 천하를 뒤덮게 된다. 그러나 확충하지 못하면 인이라는 명칭은 끝내 성립할 수 없다.

- ① 사덕은 천리가 아니며 사단을 실천해야 이루어지는 것인가?
- ② 사덕은 사단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선천적인 것인가?
- ③ 사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性]에 내재하는 선한 것인가?
- ④ 사단은 사람에게 있는 마음[心]이고 사덕의 시작이 되는 것인가?
- ⑤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에 따라 행동하여 형성되는 것인가?

13.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있을 수 없다. 신은 우리의 정신이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li> <li>○ 현자(賢者)는 영혼의 흔들림이 거의 없고,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인식하며, 항상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li> </ul>
(나)	<p>학생: 어떻게 해야 현자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상가: ㉠</p>

- ① 신과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인격신의 은총을 받아야 하네.
- ② 오직 이성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념을 버려야 하네.
- ③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서 벗어나야 하네.
- ④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하거나 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힘써야 하네.
- ⑤ 만물의 초월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거나 파악하려고 애써야 하네.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덕을 추구하는 삶은 최대 행복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대 행복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 이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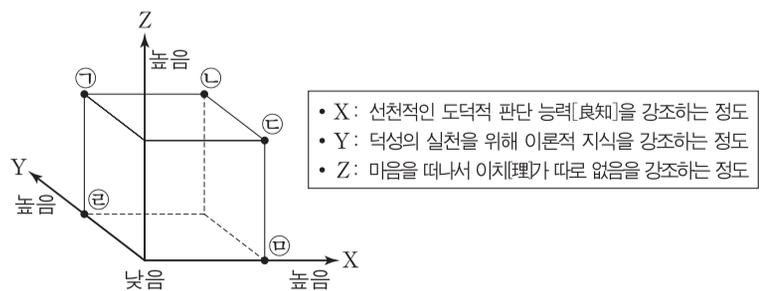
을: 덕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획득된 자질이다. 덕을 소유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천 안에 들어 있는 선을 실현할 수 있다. 덕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서사적 자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 ① 갑: 지적이고 심미적인 활동은 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갑: 행복을 위한 육체적 쾌락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③ 을: 덕은 전통에서 벗어난 개인의 주체적 삶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 ④ 을: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덕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5.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의 양지(良知)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궁리(窮理)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할 수 없다. 궁리란 아는 바로써 모르는 것에 이르며 통달한 바로써 통달하지 못한 것에 이르는 것이다.

을: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天理)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致知)이고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진리는 개인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나와 무관한 객관적인 것을 아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개체로서 개별자인 나 자신이 보편적인 것보다 높은 데 있고 그러한 개별자인 내가 절대자인 신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을: 진리를 유용성으로 보는 것을 특정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의 유용성이 노상 강도의 이익에 의해 측정될 수는 없다. 그 가치는 도로로서의 효율성과 그 실제 기능 여부에 의해 측정된다. 진리를 측정하는 척도로서의 유용성도 마찬가지로이다.

- ① 갑은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실존의 문제는 오직 주체적 결단을 통해 해결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진리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을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과 실험이 모두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경험적 탐구로 보편적 도덕 기준을 발견해야 한다고 본다.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주적 의사 결정에서는 경쟁적 이해관계의 타협이나 거래가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토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에게만 정책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사 결정 자체보다는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의 '질(質)'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간의 대화, 협의, 합의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행위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 참여이며, 순전히 사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도 있는 투표 행위와는 대조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 ① 시민들 간의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② 정책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 표현의 기회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 ③ 사적인 이익을 표출할 수 있는 투표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여야 한다.
- ④ 투표로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만 정책이 심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 ⑤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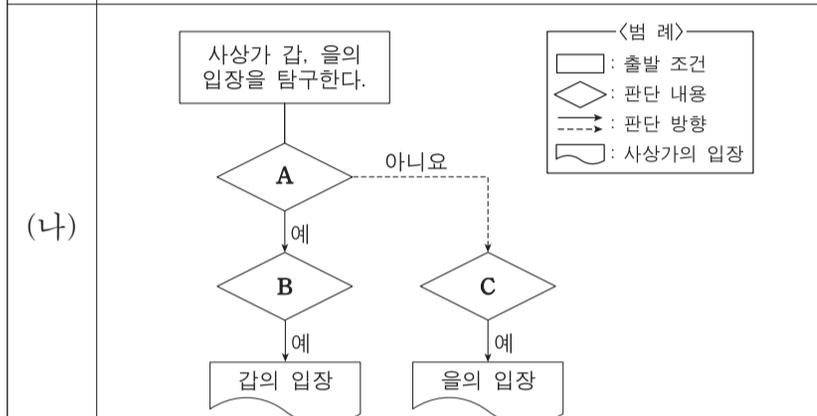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시인(是認)을 얻는다. 공감이나 아니면 우리는 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한다. 어떤 성질이나 성격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이다.  
 을: 행복의 원리가 준칙(準則)을 제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복에 대한 인식은 경험 자료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원리는 보편적 규칙을 줄 수가 없다.

- ① 갑: 이성이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 ② 갑: 행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도덕적 구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③ 을: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을: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 ⑤ 갑, 을: 도덕 판단의 근거는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다.

1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회적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며, 각 분배 영역에는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이 있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을: 사회적 기본 가치들 사이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서열적으로 배열된다. 이는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이득의 교환이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 

<보기>

- ㄱ. A: 정의로운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 ㄴ. B: 분배 영역들 간의 경계는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 ㄷ. B: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상이한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 ㄹ. C: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0.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이 요구되는 가혹한 자연 상태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의 일부는 인간의 정념에서, 일부는 인간의 이성에서 생겨난다. 인간을 평화로 향하게 하는 정념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생활의 편의를 돕는 생활 용품에 대한 욕망, 그러한 생활 용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 등이 있다. 그리고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을 제안한다.

<보기>

- ㄱ. 시민은 계약 파기를 통해 언제든지 주권자를 교체할 수 있다.
- ㄴ.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국가가 성립한다.
- ㄷ.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므로 이성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
- ㄹ.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6.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 그 본체는 성(性)이고 천리(天理)이며 참된 앎[良知]이다. 마음의 본체는 천하의 이치를 포괄하고 있으면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함이 없다.  
 을: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 그 본체는 성(性)이고 작용은 정(情)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統]하고, 그 밝은 덕은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만사에 감응하지 않음이 없다.

— <보기> —

ㄱ. 천지만물은 선한 마음에서 의미를 지니며 실재하게 되는 것인가?  
 ㄴ. 도덕적 행위는 먼저 도덕적 지식을 확립해야 가능한 것인가?  
 ㄷ. 격물(格物) 공부는 마음의 그릇된 의념[意]을 바로잡는 것인가?  
 ㄹ.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여 본성을 길러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사회에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권이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  
 을: 우리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전' 과 '일반적 복지' 에 대한 관심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

— <보기> —

ㄱ. 갑은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 줄 재판관이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이상적인 국가는 절대 군주제가 시행되는 국가라고 본다.  
 ㄷ. 을은 사유 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사회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저항권이 상실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배우는 자는 성학(聖學)에 뜻을 두어야 하네. 배 순간 깨어 있고 오롯이 집중하여,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理發氣隨] 순선(純善)한 사단과 기가 발하여 이가 탄 [氣發理乘] 중절(中節)한 칠정을 보존하고 사욕을 버려야 하네. 그러면 무성한 수풀 속에 한 떨기 난초꽃이 종일도록 맑은 향기를 뿜으면서도 스스로 그 향기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네도 어느덧 성현이 되어 자기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네. ... (후략)...

- ① 기쁨·슬픔·노여움 등과 같은 칠정에는 선(善)이 존재할 수 없다.
- ② 기(氣)를 중시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문을 지향해야 한다.
- ③ 이(理)의 본연인 선을 실현하여 도덕적 인격 완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측은지심(惻隱之心)은 기에서 나와서 이가 드러난 도덕 감정이다.
- ⑤ 궁리(窮理) 공부를 멀리하고 경(敬)을 실천하여 본심을 함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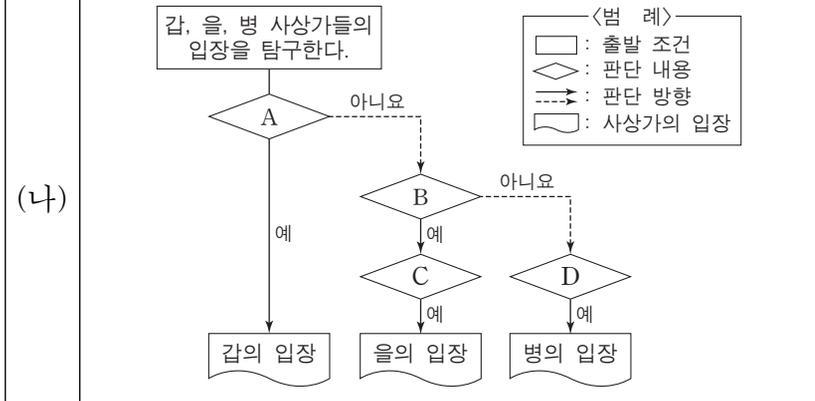
9.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완전한 행복은 신의 본질을 직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신에게 도달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에 의존해 그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며, 이 참여 활동의 원천은 신학적 덕이다.  
 을: 완전한 행복은 신에 대한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랑은 현존하는 것으로 표상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을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다. 신과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인식해야 한다.

- ① 갑: 이성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한다.
- ② 갑: 인간의 불완전함은 신의 사랑과 은총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 ③ 을: 인간과 사물은 무한한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 ④ 을: 인간은 이성에 의해 인도될 때 정념의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갑, 을: 완전한 행복은 의지의 자유를 지닌 신을 사랑함으로써 얻어진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충분한 자유가 주어진 사회에서는 분업의 결과로 생기는 다양한 생산물의 대폭적인 증가가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로 최저 계층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부의 증대를 가져다준다.  
 을: 경제 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민간 부문의 '유효 수요'를 확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타협을 도모하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야 한다.  
 병: 국가는 시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과, 경쟁이 유효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나, 국가 주도로 경제 활동을 계획하면 시장은 '노예의 길'로 접어든다.



— <보기> —

ㄱ. A: 재화의 사적인 소유와 이윤 추구 활동에 동의하는가?  
 ㄴ. B: 정부 정책을 통한 사회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하는가?  
 ㄷ. C: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에 찬성하는가?  
 ㄹ. D: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한국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理)와 의(義)이다. 이와 의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구운 고기가 우리의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을: 사람의 마음에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는 능히 밝게 깨달을 수 있으며 만사에 두루 통할 수 있다. 이에 측은히 여길 수 있고, 사양할 수 있으니 못하는 바가 없다. 이것이 이른바 양지(良知)이며 인(仁)이다.

—————<보기>—————

ㄱ. 갑은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후천적 노력은 필요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자기 자신이 도덕적 삶과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본다.  
 ㄷ. 을은 도덕 행위의 기준은 마음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인간이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모든 쾌락과 고통은 측정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범위이다. 어떤 쾌락이나 고통이 또 다른 쾌락이나 고통과 연결될 때 그 쾌락이나 고통도 측정될 수 있다. 그 기준은 다산성과 순수성이다.

을: 어떤 쾌락에는 만족보다 불만족의 양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 쾌락 대신에 다른 쾌락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 ① 최대 행복을 가져올 유덕한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는가?
- ② 행위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고통이 그 행위자에게 선이 될 수 있는가?
- ③ 감각적 쾌락과 지적인 활동에서 얻는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가?
- ④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한 행위 자체의 옳음에 근거하는가?
- ⑤ 행위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옳은가?

13.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전제(專制)의 특성은 하나의 수단을 통해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직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선적인 의료 혜택 등을 얻는 것이다. 복합 평등 체제는 이러한 전제와 정반대이다. 복합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공직에 선택된다고 해도, X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X에게 주어지지 않는 안 된다.

- ①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
- ② 모든 사회적 가치는 필요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 ③ 사회적 가치는 그 고유한 의미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한다.
- ④ 복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배적 가치는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 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면 안 된다.

14.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이성은 인간이 야수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된 근거이고 참이나 거짓을 발견한다. 이와 달리 정념과 의욕 및 행위는 참이나 거짓이라고 단언될 수 없고, 이성과 상반되거나 합치될 수도 없다. 이성은 어떤 행동이나 정념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으며, 단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할 뿐이다.

			(A)			
	(B)					
			(C)			

(나) [가로 열쇠]  
 (A):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를 가리키는 말  
 (B): 플라톤의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을 총칭하는 말  
 (C): 주자가 주장한 '본성이 곧 이치[理]'임을 뜻하는 말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인간의 정신 안에서 생겨나는 인상(印象)이나 느낌에 기초한다.
- ② 자연스러운 본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도덕 규칙에서 지각된다.
- ③ 감각에 의해 관찰되는 대상과 사건에 내재된 객관적 성질이다.
- ④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만든 이성의 산물이다.
- 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선형적 원리에서 논리적으로 연역된다.

15.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의 본성은 이와 기가 합해진 것이다. 이가 기 속에 있는 것을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 하고, 기질 속의 이만을 홀로 가리켜 말한 것을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한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하나의 성이지만, 주(主)로 말한 것이 달라 두 개의 이름이 있을 뿐이다. 성이 이미 하나인데, 정에 이발과 기발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성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을: 사람의 본성은 도의(道義)와 기질(氣質)이 합해진 것이다. 식욕을 추구하는 성향을 기질지성이라 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향을 도의지성(道義之性)이라 한다. 짐승도 먹이를 던져 주면 먹으려 한다. 사람과 짐승의 본성을 똑같이 기질지성이라고 하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똑같이 도의지성이라고 하면 금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보기>—————

ㄱ. 갑은 탁하고 편벽된 기질이 불선(不善)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ㄴ. 을은 인간만이 선천적인 도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사람이 시비 분별의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도덕적인 행위로 인의(仁義)의 덕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그림은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생이 삶과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열반의 언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만 의혹과 잘못된 집착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심(一心)의 법을 세워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의 두 가지 문[二門]에 들어가야 합니다.

중생이 부처의 청정하고 밝은 마음을 깨닫고 지킬 수 있다면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릇 도(道)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가지 문[兩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갑



을

- ① 갑: 진여와 생멸의 두 가지 문은 결국 일심으로 귀결될 수 있다.
- ② 갑: 일체의 쟁론(爭論)도 일심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 ③ 을: 깨달음의 수행에는 언제나 정(定)과 혜(慧)가 함께 있어야 한다.
- ④ 을: 돈오 이후에 점수를 통해 모든 습기(習氣)를 단박에 제거해야 한다.
- ⑤ 갑, 을: 무아(無我)를 철저히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

17.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의 경향성에 관련되거나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시장 가격을 갖는다. 시장 가격은 물건의 상대적 가치에 불과하다. 물건이 아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이 유일한 가치이다.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은 단순히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내재적 가치, 다시 말해 존엄성을 갖는다.

- ① 인간은 본능적 욕구에 이끌리므로 도덕 법칙은 의무가 될 수 없다.
- ② 인간은 누구나 실천 이상을 가지므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므로 자유 의지의 법칙이 될 수 없다.
- ④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에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 ⑤ 선의지(善意志)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18.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실천’이란 혼자 축구공을 열심히 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기하는 축구 경기 자체이다. 단순히 혼자 공을 차는 것에는 축구 경기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 축적된 내재적인 선이 없다. 이러한 실천이 덕의 척도와 규칙이 된다. 덕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공동체에 내재된 선의 성취를 통해서 얻어진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에 참여할 때 유덕한 사람이 된다.

— <보기> —

- ㄱ. 덕은 공동체와 독립된 추상적 도덕 원리를 따를 때 습득된다.
- ㄴ. 의무감에서 억지로 행하는 선행은 유덕한 행위가 되기 어렵다.
- ㄷ. 존경스러운 인격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 ㄹ. 인간의 유덕한 성품보다 도덕 규칙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양이(洋夷)들이 사학(邪學)을 널리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약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에 재앙을 끼치는 것이 양적(洋賊)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정학(正學)을 밝히고 이단(異端)을 배척해야 한다.

을: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키고[守心]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며[正氣], 그 본성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아라. 서양의 학(學)에는 하늘님[天主]의 가르침이 없고, 서양의 도(道)는 허무에 가깝다.

— <보기> —

- ㄱ. 갑은 백성의 생업 보장을 전제로 서양 종교의 수용을 주장한다.
- ㄴ. 갑은 동양의 도(道)와 서양의 기(器)가 둘이 아님을 주장한다.
- ㄷ. 을은 사람이 귀하게 대우받는 만민 평등의 실현을 주장한다.
- ㄹ. 갑, 을은 효제(孝悌) 정신의 계승과 국난의 극복을 주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부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생산의 힘과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 노동자는 상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신은 그만큼 더 값싼 상품이 된다.
- (나)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지 않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최고 형태는 민주주의이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추구하였으며, ㉡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하려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폭력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나)는 ㉢ 자유로운 의회 활동에 기반을 둔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중시하였으며,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한편 (가), (나)는 모두 ㉤ 역사 발전 단계상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공산 사회로 이행된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그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든, 실존 이후에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구상하는 신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매 순간 자신을 발명하도록 선고 받았습니니다. 자기 자신에 도달한 인간은 타인을 자기의 실존 조건으로서 발견하게 됩니다.



- ① 규범의 속박에서 벗어나 타고난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따른다.
- ② 사회적 삶을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설정한 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 ③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④ 감정과 욕망을 배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인 규범을 지킨다.
- ⑤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다.

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자연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상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이상들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을: 학문의 기초로서의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은 우리를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정신을 감각으로부터 떼어 내는 데 가장 쉬운 길을 열어 준다.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참이라고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해 준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는 데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 과학적 지식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인간의 생활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명백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 연역적 추론은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에게 자연에 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주(僭主)는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아침과 굴종을 하며 산다는 점에서 진짜 노예이며, 자신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실로 가난한 자다. 그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병들어 있다. 철인왕은 그와 반대되는 유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철인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최선의 이상 국가로 볼 수 있다.

- ① 철인왕은 이성이 뛰어나지만 참주는 욕망이 우세하다.
- ② 이상 국가에서 세 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
- ③ 철인왕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
- ④ 이상 국가에서는 전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강조된다.
- ⑤ 철인왕의 지혜는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덕이다.

4.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성인(聖人)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자유로이 노닐게 한다. 그는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의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기교를 장사의 솜씨로 여긴다. 성인은 모략을 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 < 보 기 > —

- ㉠.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소요(逍遙)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 시비선악을 엄격히 구별하고 정명(正名)을 실천해야 한다.
- ㉢.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추구해야 한다.
- ㉣. 도덕적 본성의 실현을 위해 신독(慎獨)을 실천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5. 그림은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신의 존재는 진리의 존재로부터 증명됩니다. 악은 의지의 산물이지만 덕은 신의 은총의 산물이며, 신의 은총이 있어야 완전한 행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 가지 사랑이 있음으로써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게 됩니다.

신의 존재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증명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연법을 따를 수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으며, 자연법은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근거합니다. 또한 완전한 행복에 이르려면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 ① 갑: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신의 나라에 속한다.
- ② 갑: 신은 만물을 창조하였으므로 악도 신의 창조물이다.
- ③ 을: 자연법은 인간 이성의 명령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다.
- ④ 을: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해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 ⑤ 갑, 을: 완전한 행복은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을 필요로 한다.

6.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군자의 본성[性]은 비록 그의 뜻이 크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더 늘어나지 않고, 비록 궁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군자의 본성에 속하는 인의예지는 그의 마음[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을: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으면 본성을 높이게 되며, 스승과 법도가 있으면 노력[積]을 높이게 된다. 김매고 밭 가는 일을 쌓아 농부가 되고, 깎고 다듬는 일을 쌓아 장인이 되듯이 예[禮]와 의[義]를 쌓으면 군자가 된다.

- ① 갑은 옳고 그림을 가려내는 마음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을은 외적인 예와 의를 쌓으면 모든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타고난 도덕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예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7.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모든 법(法)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지속되지도 단절되지도 않으며,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 만약 모든 상(相)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보기>—

ㄱ. 분별적 인식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  
 ㄴ. 멸제(滅諦)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시를 실천해야 한다.  
 ㄷ. 모든 존재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空]을 깨달아야 한다.  
 ㄹ.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8.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지(良知)는 사람에게 본래 있는 것이지만, 궁리(窮理)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통달한 데 만족하여 아직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하지 않기 때문이다.</li> <li>○ 마음은 본래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지만 그 체(體)는 허령(虛靈)하여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이치는 비록 온갖 일에 흩어져 있지만 그 용(用)이 미묘하여 실로 한 사람의 마음 밖에 있지 않다.</li> </ul>
(나)	㉠ _____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이치를 훤히 깨닫게[豁然貫通] 될 것이다.

- ① 본성[性]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라.
- ② 참된 앎이 발휘될[致良知] 수 있도록 이기적 욕망을 제거하라.
- ③ 헤아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능력[良知]을 갖추도록 궁리를 하라.
- ④ 앎과 행위가 본래 하나임을 자각하고 일상에서 항상 선행을 하라.
- ⑤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라.

9.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생님께  
 선생님은 지난 편지에서 국가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과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실업이나 공황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제 활동의 목적은 오직 자유 경쟁 체제하에서만 실현 가능하며, 이런 경쟁 체제에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형성됩니다. ... (후략)...

- ① 중앙 집권적 계획을 통해 완전 고용에 도달해야 한다.
- ② 시장 경쟁 체제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필요하다.
- ③ 국가는 시장 질서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④ 경제적 자유의 실현보다 경제적 평등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
- ⑤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없다.

10. (가)를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람의 성(性)이 선을 좋아함으로 인해 측은(惻隱)과 사양(辭讓)의 마음이 있고, 악을 싫어함으로 인해 수오(羞惡)와 시비(是非)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사심(四心)이 있음으로 인해 사덕(四德)을 이룰 수 있다.																												
(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 style="width: 20%;"></td><td style="width: 20%;"></td><td style="width: 20%;"></td><td style="width: 20%;"></td><td style="width: 20%;"></td><td style="width: 20%;"></td></tr> <tr><td></td><td>(A)</td><td></td><td>(B)</td><td></td><td></td></tr> <tr><td></td><td></td><td></td><td>(C)</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가로 열쇠] (A): 주희의 사상을 비판하고 심학(心學)을 체계화한 명대(明代) 사상가의 이름. 호는 양명(陽明) (C): 고려 시대에 천태종을 개창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자(字). 시호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세로 열쇠] (B): ..... 개념												(A)		(B)						(C)								
	(A)		(B)																										
			(C)																										

- ①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정신과 정의로운 마음이다.
- ② 사양과 시비의 마음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선천적인 덕이다.
- ③ 덕으로 자라날 수 있는 짝이나 뿌리에 해당하는 선한 마음이다.
- ④ 예의를 배우고 익혀 이기적인 본성을 교화할 때 형성되는 덕이다.
- ⑤ 측은과 수오의 마음을 일상에서 확충함으로써 얻게 되는 덕이다.

11. 다음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情)에 사단과 칠정의 분별이 있는 것은 성(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분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을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어찌 정만 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정은 하나이지만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직 이(理)만을 말할 때와 기(氣)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습니다.



<보기>

- ㄱ.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인가?
- ㄴ. 사단은 이가 발한 성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인가?
- ㄷ. 이는 순전한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인가?
- ㄹ.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을 떼게 만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의하지 않다. 폭력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공통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힘을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을: 정치적 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조직된 폭력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서 결합하여 혁명에 의해 지배 계급이 되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 대립 및 계급 자체의 존재 조건을 폐지한다.

- ① 갑: 만인의 계약을 통해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③ 을: 이상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게 된다.
- ④ 을: 모든 계급의 연대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⑤ 갑, 을: 국가는 폭력 혁명에 의해 필연적으로 소멸될 권력 기구이다.

[13~14]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별하는 것이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이 바라는 것은 오직 의무가 문제일 때에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을: 도덕적 감정의 한 가지 원천이 유용성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시인(是認)과 호의(好意)를 얻는다는 것이 도출된다. 여기에 도덕성의 기원을 상당한 정도로 설명해 주는 원리가 있다.

13.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도덕의 기본적인 목적이 행복의 실현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② 도덕에 있어서 이성은 감정의 보조자일 뿐임을 모르고 있다.
- ③ 도덕적 감정은 도덕의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④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도덕적 행위와 행복의 추구가 양립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14. 갑, 을이 <문제 상황> 속 K 군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상황>

고등학생인 K 군은 어느 날 TV를 보다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돌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소년 가장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려고 모아 둔 용돈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른 K 군은 그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 ① 갑: 의무 의식을 기부 행위의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 ② 갑: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경향성에 따라 기부해야 합니다.
- ③ 을: 기부 행위는 유용성과 무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④ 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기부해야 합니다.
- ⑤ 갑, 을: 이성의 명령을 직접적인 동기로 삼아 기부해야 합니다.

1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부정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는 자연과 일치하지 않는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나에게서 신과 나의 영혼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을: 우리는 자연적 본성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육체적인 욕망은 충족시키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인 욕망은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

- ① 개인의 욕망 충족이 사회적 쾌락 증진으로 이어지게 노력해야 한다.
- ②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신과 자연과 인간의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④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⑤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순응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1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덕은 인간 본성의 목적이 되는 행복을 성취하게 해 준다. 덕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중용을 목표로 삼는다. 덕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낀다.  
○ 모든 공동체는 선을 추구하는데,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최고이며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다른 아닌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이다.

- ① 인간 본성의 목적이 정치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② 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임을 강조한다.
- ③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게 해 주는 품성적 덕임을 강조한다.
- ④ 행위자의 성품보다 추상적 도덕 원리를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항상 중용 상태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17.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나의 스승은 “관(觀)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경(經)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교관에 지극히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니, 화엄을 전수하더라도 관문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을: 점수문에 속하는 열등한 수행이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는 필요하다. 망상이 들끓으면 우선 정(定)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본래의 고요함으로 되돌리고, 혜(慧)로 명한 상태를 다스리면 결국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 ① 갑은 내적인 교(敎)와 외적인 선(禪)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정혜를 함께 닦는 것을 수심(修心)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참선을 통해 악한 본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화두(話頭)를 들고 수행하는 간화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18.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특정한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자는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며 살면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 ① 국가의 구성원은 모두 정치적 의무를 지니는가?
- ②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하는가?
- ③ 정치적 의무의 성립 근거는 개인의 동의에 있는가?
- ④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는 모두 그 국가의 구성원인가?
- ⑤ 국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동의인가?

1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만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불운한 계층의 처지가 최초 상태에 비해 개선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의에 부합한다. 을: 모든 것이 매매되고 모두가 같은 양의 돈을 갖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이러한 단순 평등 상태는 자유 교환으로 결국 불평등해지므로,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들을 갖는 복합 평등 상태가 정의에 부합한다.
(나)	

— <보기> —

ㄱ. A: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ㄴ. B: 정의의 제2원칙은 제1원칙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칙인가?  
 ㄷ. C: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인가?  
 ㄹ. C: 정의의 세분화된 영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선천에서는 상극의 이치가 세상을 지배하여 원(冤)과 한(恨)이 쌓여서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므로, 내가 천지도수를 뜯어 고쳐서 상생의 도로써 선경(仙境)을 열고 조화 정부를 세우겠다.  
 을: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과 성인의 심인(心印)인 법신불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영육쌍전(靈肉雙全)을 통해 개인·가정·사회·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 <보기> —

ㄱ. 갑은 무속과 도교를 배척하고 해원(解冤)을 강조한다.  
 ㄴ. 을은 시대 변화에 맞춰 정신보다 물질의 개혁(開闢)을 강조한다.  
 ㄷ. 을은 생활 속에서의 보은·평등·불공의 실천을 강조한다.  
 ㄹ. 갑, 을은 신분과 남녀의 차별을 떠난 평등사상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